

동수민주주의의 시대
동수헌법을 기대합니다.





CONTENTS



표지이야기

20대 국회 51명 여성 국회의원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51명 모두의 의정보고서를 표지에 담았습니다.



특집

스페셜 인터뷰

- 04 정세균 국회의장, 남녀동수 시대, 성인지 국회를 말하다

여성의정 365

정치를 이끄는 여성

- 08 역대 여성장관 좌담회
- 16 19대 대선 리포트
- 20 19대 대선 여성대통령 후보의 도전 의미와 과제

희망을 만드는 법

- 22 가족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젠더 거버넌스

- 24 촘촘한 안전망의 도시, 안산시의 성평등 정책을 들여다본다
- 26 여성이 만드는 따뜻한 쉼터, 대구광역시 모범 수성구를 찾아가다.

세계는 지금

- 28 세계는 이미 동수민주주의 시대로!

포토에세이 - 그곳에 가면

- 30 해남 땅끝마을 '도솔암'

정치여정

칼럼

- 32 모든 국가정책에 성평등 의지를
- 34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여성
- 36 여성에게도 나라다운 나라를!

내 인생의 책

- 38 늙은 어부에게 기다림을 배우다.

살며, 사랑하며, 꿈꾸며

- 40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세상을 그리며
- 42 여성정치인의 남편으로 산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 44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여성의 정치참여로부터
- 46 초심을 잃지 않고 초선같은 열정으로 - 구리시의장 민경자

함께 걷는 길

- 48 백재현 의원을 만나다
- 50 김명연 의원을 만나다



여성, 별이 되다

그뻐 그랬지

- 52 동티모르 파병안에 찬성합니다! 추억의 사진 한 장 - 이미경 전 의원

꿈을 이루다

- 54 페어트레이드 그루 이미영 대표 인터뷰

여성인물열전

- 56 나라일이 급한데 암탉, 수탉 가리지 말고 싸야지 - 여성정치인 1인자 박순천

보고 싶은 얼굴

- 58 의원님, 어떻게 지내세요?

법인 소개

- 60 한국여성의정 2017년 상반기 활동 소개

부록

- 66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 76 도움주신 분들
- 77 참여 안내
- 80 편집 후기

정세균 국회의장, 남녀동수 시대 성인지 국회를 말하다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 이연숙, 이미경, 나경원, 박영선
진행 신 명(사무총장)
정리 박진경(여성의정 전문위원)



이연숙 의장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이후부터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적 위기사태를 맞아 국회의장으로서 의장 취임 1년 동안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요?

의장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사태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장으로 1년을 보내면서 가장 뜻깊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국회 환경미화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시킨 일이었습니다.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까지 줄다리기를 했는데 끝내 관철시켰습니다. 국회부터 시작하여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 기업까지 고용안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장으로서 보람도 많겠지만 힘들었던 일들도 많으셨지요?

의장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투표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사회를 보고 직접 의사봉을 두드려 의결해야 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을 지지하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의결을 위해 의장석을 지켜야 하더니... '이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이게 다 저의 숙명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계기가 된 사건이었지만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저와 같은 의장이 없어야겠지요.



이미경 남은 1년간의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의장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은 국회 주도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개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이슈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겠고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생산적인 협치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인데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 문제는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습니다. 임기 동안 국회가 민생 중심 입법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제1대 국회에는 여성 국회의원이 단 1명(임영신)에 불과했지만,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51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여성 국회의원들은 51명지만 일은 51%를 해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이 많아 국회가 실제로 많이 달라졌지요?

의장 의정활동에 있어서 20대 여성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단연 돋보입니다. 정유라 특혜입학, 최순실게이트 등 지난해 있었던 대형 게이트를 주도적으로 파헤친 것이 여성의 원님들이었지요?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님 활약도 대단했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정부 고위직에 여성의 등용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들의 입각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여성 국회의원들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여성 의원들의 활약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앞당기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신명 현재 논의 중인 헌법 개정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시행 한다고 합니다. 비록 현행 헌법에 성 평등 규정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 격차 순위는 144개국 중 116위로(세계경제포럼, 2016)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헌법에 명시 된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남녀동수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평소에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의장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곳임을 감안할 때 50% 여성 대표성을 지향하는 것은 온당한 주장입니다. 지난번 여성 국회의원 51명 전원 명의로 전달받은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제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가 넘는 국가는 19개국에서 46개국으로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계 95위에서 112위로 후퇴했습니다. 의회의 성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개선을 통해 동등한 정치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 해결책일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3월 28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헌법 개정과 관

련하여 채택한 의견서 내용 중 ‘실질적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보장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의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박영선 2012년 국제의원연맹은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각국 의회에 성 평등 입법과 의회 전반의 성 주류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 의회 사무처 내에 고위직 여성비율은 낮은 상태이고 여성 수석전문위원은 물론 전문위원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국회의원 여성보좌관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올 연초 인사에서 의장님께서 다수의 여성공무원을 승진시키고 특히 요직에 여성을 배치하여 여성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성 평등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임기 동안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의장 국회 여성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다가 감사담당관을 여성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남녀의 능력이 비슷할 때는 성비 50%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성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성 평등 인사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성 비율에 비례하는 승진 하한선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 주요보직자나 여성 승진비율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성 중간관리자 육성도 중요하고요. 의장으로서 국제의원연맹의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 결의를 존중해야 하고,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성 평등 국회 실현을 위해 상임위 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연숙 2018년이면 헌정 70주년이 되지만 여성 국회부의장 탄생은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여성 의원의 원내 정치 영향력 강화와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한 여성 국회부의장 필요성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와 이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의장 개인적으로 이미경 의원이 부의장이 될 줄 알았는데 당시 정치상황에 안 된 것이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20대 국회는 5선의 추미애 의원이 있고, 4선 의원만 해도 공동대표이신 박영선 의원, 나경원 의원도 계시고 조배숙 의원도 있고 벌써 3명이나 되지요? 앞으로 다선의 여성국회 의원들은 더 늘어날 텐데, 이미 여성대통령, 여성총리도 탄생한 마당에 여성 국회부의장이 아니라 여성 국회의장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웃음)
국회의원과 국회운영에 여성참여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 국회부의장 탄생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부의장을 중심으로 성 평등 입법이 독려되고,

성 평등하게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될 수 있겠지요. 차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때 각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미경 마지막으로 헌법에서 남녀 동수가 명문화 되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동수 내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성 평등국회를 위해서는 여성 국회의원 수도 점차 확대되어야 합니다. 한국여성의정은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여성인재 발굴 및 여성 정치인의 역량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정과 여성 국회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장 국회는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협조하고, 국회차원에서도 성평등 입법도 꾸준히 만들도록 격려하고 점검할 것입니다. 한국여성의정은 그동안 사회적 편견과 관습에 맞서 정치문화 개선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는데 이제는 여성인재를 키우고 차세대 여성정치인을 육성하는 여성정치교육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인재풀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성들이 정치적 지식을 갖추고 리더십에 대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성의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예산중액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정에서 내년에 여성 의정대학을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차세대 여성 정치인 양성을 위해서 꼭 출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남녀동수내각, 역대 여성장관들, 희망을 말하다

이연숙 전 정무제2장관 신낙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 김금래 전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전 여성가족부장관

진행: 신 명 사무총장, 김혜성 교육실장 / 정리: 박진경 전문위원



사회자 새 정부 들어 인사수석을 시작으로 국가보훈처장, 외교부 장관,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에 여성을 내정하면서 남녀동수 내각의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새정부 여성 장관 지명에 대한 평가와 기대가 궁금하다.

이연숙 새정부가 여성장관 30프로 약속부터 실천하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름길이다. 여성 정책 대상이 되는 여성, 노인, 아이까지 합치면 인구의 70프로가 넘는다. 살림살이를 할 줄 아는 여성이 나라 살림도 잘 할 수 있다. 심지어 국방부장관도 자식을 군대에 보낸 엄마의 심정으로 하면 남성보다 더 잘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여성 국방장관이 나오고 있다. 우리도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신낙균 그동안 여성장관이 임명되는 부처는 정해져 있었는데 보훈처, 외교부, 국토부까지 벽을 허물었다. 선정한 인물도 새롭고 인품이나 전문성까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방향으로 하면 이번 정부 내각에서 성평등은 잘 지켜질 것 같다. 다만 숫자는 충분조건은 못되고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김대중 정부 때도 초기에는 여성 장관이 여럿 있었다가 계속 줄어 마지막엔 여성부와 환경부 장관 정도만 남았다. 임기 내내 50프로 될 때까지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다.

김명자 '살림'은 '살리다'의 명사형이다. 가정을 살려본 여성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생태계까지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성 장관 30%, 50%라는 양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여성의 '살림'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여성이 새롭게 진출하는 영역은 그만큼 위험도 크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이다. 끝까지 순항해서 50프로의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한다.

진수희 새 정부의 여성 활용 의지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걱정은 인사에서 스타일, 스토리 위주로 가게 되면 검증과정에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 지난 정부는 여성대통령이었지만 여성 장관이 적었고 임명된 장관들도 문제가 있었다. 여성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했었는데 새 정부가 여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적 기대도 커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을 철저히 해서 여성정치인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까지 형성되는 내각구성 과정이 되길 바란다.

김금래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 인사수석부터 여성으로 했다는 것은 여성운동 선배 입

“ 여성 정책 대상이 되는 여성, 노인, 아이까지 합치면 인구의 70프로가 넘는다. 살림살이를 할 줄 아는 여성이 나라 살림도 잘 할 수 있다.”

이연숙 전 정무제2장관



“ 여성장관이어서 장점을 꼽으려면 부처간 협력에 유리했던 것 같다. 남성장관들이 소수의 여성장관과 갈등을 피하려 하기도 했지만, 인맥 없고 지방색 없다보니 소신 있게 결정할 수 있었고 신뢰를 얻기 쉬웠다. ”

신낙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장에서 참 신선했다. 초기 내각에서부터 임기내 50프로 약속을 끝까지 실천하길 바란다. 그리고 언론이나 공무원 조직의 보이지 않는 거부감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데 신뢰를 해주고 잘 극복해 나간다면 계속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 된다고 생각한다.

백희영 우리 사회가 네트워크 사회라서 국회 활동하시다 내각에 오신 분들은 여러 모로 도움이 되지만 저같이 정치계가 아닌 데서 들어는 장관이나 고위직 여성분들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럴 때 안팎으로 여성들끼리 서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여성장관이 들어가서 여성정책에 대해 서로 뜻과 손발을 맞추고,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뒷받침 해준다면 다양한 경력의 여성인재들이 성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 재임시절 여성장관으로서 어려웠던 일도 있었겠지만, 반면에 여성이어서 좋았던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장점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낙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장관 4명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하였기에 당시 여성 최고위원직에 있었던 제가 영순위로 이야기되었다. 다만 문광부 장관이 된 것에 대해 상당히 놀랐다. 어려웠던 것 중 하나는 IMF시기에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이 우선인 상황에서 특히 문화부는 비경제분야가 많아 구조조정 역풍이 심각하였다. 기업내 체육 팀부터 없앤다고 해서 정신없이 해결하러 다녔다. 또 하나는 당시 안기부의 정치개입이 심각했다. 차관 임명에도 관여하려 했을 때 정치인 출신 장관이어서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여성장관이어서 장점을 꼽으려면 부처간 협력에 유리했던 것 같다. 남성장관들이 소수의 여성장관과 갈등을 피하려 하기도 했지만, 인맥 없고 지방색 없다보니 소신 있게 결정할 수 있었고 신뢰를 얻기 쉬웠다. 그래서 걱정하고 산하기구에 4명의 여성 기관장을 발탁했다.

김명자 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대통령과 인연이 만들어지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장관으로 발탁됐다. 여성은 합리성과 감성, 거버넌스 리더십까지 갖춰 강점이 많다. 시대적으로 환경부는 환경분쟁이 많아 갈등 조정 역할이 중요한데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합리적 판단으로 남성보다 더 잘할 수 있었다. 특히, 3년간 300여 차례 대화와 설득을 거쳐 3대강 수계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 지금은 익숙해진 천연가스 버스 도입을 위해 수많은 부처를 설득한 것은 힘들었기에 보람이 있어 기억에 많이 남는다. 당시 환경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했던 시기에 환경부에 대한 좋은 평가로 위상을

올려놓았고 3년 8개월이라는 헌정사상 최장수 여성장관이 될 수 있었다.

진수희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10여년 있다 보니 정책능력을 평가받아 비례대표로 공천되었고, 대선후보경선캠프에서 일하다보니 발탁됐던 것 같다. 여성은 진입하기까지가 힘들지 일단 뚫고 나면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서 잘만하면 개인에게도 장점이 되고, 부처 정책을 관철하는데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회의원 경험은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어서 장관으로서 장점이 되었다. 재임시 인사직체를 해결하면서 3가지 인사원칙을 정해 인사과장에게 전했다. 그 중 하나가 “국별로 핵심과의 과장을 여성으로 진진 배치해라”였다. 처음엔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여성과장들이 모두 일을 잘 해서 그 후로 더 많은 여성과장, 여성국장 임명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다.

백희영 당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가족학회 회장이라는 전문성이 고려되어 여성부 장관으로 발탁되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여성부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여성가족부로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업무조정이 가장 어려웠다. 복지부의 가족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정책만 가져오고, 아동 정책은 복지부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어떤 아동학 교수가 큰 애만 데려오고 작은 애는 남겨 났냐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 (웃음)

김금래 여성NGO 활동을 오래 했고, 당과 국회에서 여성 조직과 여성정책을 하다 보니 여성부 장관으로 발탁되었다. 업무가 타 부처와 겹쳐있어서 업무를 조정하기 어려웠다. 여성이슈는 국무회의에서 지지해주는 장관이 없고 항상 혼자라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많았다. 그래도 여성장관이다보니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여성은 균형감 있고 소통에 장점이 있다. 설득과 조정이 장관 업무의 대부분이다 보니 이러한 장점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연숙 처음 정무2장관에 입각해서 보니 여기저기 사람 모아 외인부대로 구성해서 여성정책 전문성이 거의 없었다. 취임하자마자 여성단체에서 보내준 축하금을 모아, 1박2일 전 직원대상으로 여성정책 전문가 불러서 토론하면서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니 업무가 저절로 돌아갔다. 기억나는 것은 총무과장을 여성으로 발탁했더니 국장들이 다 반대했다. 나중에는 융통성 있게 직원들의 형편을 잘 보살펴준다고 더 좋았다고 하더라. 타부처 협조는 국무회의를 잘 이용했다. 비협조 장관이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직접 거론하면 일이 풀리더라.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 남녀동수는 당연히 완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다. 인재발굴의 원칙으로는 어떤 분야에서든 능력을 정확하게 보고 발탁하면 반은 성공한다고 본다. ”

김금래 전 여성가족부장관



사회자 남녀동수내각에 대해 여성인력풀 부족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장과 여성 인재 발굴을 위한 시스템을 보완할 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명자 남녀동수는 당연히 완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다. 인재발굴의 원칙으로는 어떤 분야에서든 능력을 정확하게 보고 발탁하면 반은 성공한다고 본다. 연고나 정치적 배경에서 발굴하면 실수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검증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김금래 여성 인력풀이 부족해서 동수내각이 어렵다는 것은 남성들 핑계다. 장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장관을 찾기 때문에 여성이 없는 거다. 특히, 경력 중심 고정관념이 문제다. 경력이 중심이 되면 기회조차 없었던 여성은 당연히 책임자가 없다. 세계는 지금 3,40대 대통령과 총리가 나온다. 경력이 있을 리가 없다. 그래도 그 나라 국민들은 인정한다. 고정관념부터 깨야한다. 가능성 보고 여성을 키워야한다. 그동안 소수의 장관들이 경험 없어도 훌륭하게 잘 해냈다. 여성 리더에 대한 우리사회 신뢰가 중요하다.

진수희 맞는 말씀이다. 남성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다. 여성장관에게 유독 엄격한 잣대로 평가한다. 특히, 실패했을 때 남성과 여성이 짊어지는 무게가 다르다. 남성은 개인의 실패로 보는데 여성은 여성 전체의 실패로 본다. 여성들이 너무 과한 대표성을 짊어지고 있다. 인력풀은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문제다. 머지않아 가속이 붙을 것이다.

신낙균 준비된 여성이 없다는 건 편견이다. 국제적 데이터 보면 한국의 여성의 교육정도를 의미하는 발전지수는 상위권이다. 대학진학, 각종 고시에서도 이미 여성이 앞섰다. 임명권자, 공천권자의 고정관념과 남성적으로 형성된 정치문화에서 기회가 없어서 묻혀있다는 거다. 여성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일에 집중하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한 공천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여성들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자 성주류화를 위해 새 정부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김명자 남성이 변해야 여성문제가 해결되는데 남성들의 인식저변이 많이 바뀌지 않았

다. 현실의 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부작용 없이 성취하느냐가 여성과 국가 과제다.

백희영 여성부는 조직과 예산이 적다. 그럼에도 여성부 이슈는 여성부만의 것이 아니기에 노동부, 행안부, 기재부 등 타 부처의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정책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삶을 넘어 국민들 삶을 달라지게 한다. 결국 대통령이나 총리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된다.

신낙균 노무현 정부부터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를 내실화해야한다.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제도, 성인지예산제도까지 성주류화 환경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진수희 성주류화 실현은 여성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물학적 숫자도 중요하지만 젠더 마인드로 무장한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야 성주류화 실현이 가능하다. 여성장관들 모두가 맡은 부처는 물론 모든 국무위원을 통해 성주류화가 실현되는 전파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무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정책 전체를 보는 균형적 관점도 중요하다.

김금래 남녀동수를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증가는 속도가 더디다. 비례대표 50% 법제화를 통해 여성 국회의원이 증가했듯이 가능하면 이번 정부에서 법제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주류화는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면 민간도 발 맞춰 따라갈 것이다

이연숙 법 제도 변화가 여전히 중요하다. 우선 제일 쉬운 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을 보면 여성이 적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의원, 시도의원 거쳐서 국회의원까지 남녀동수 의무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사회자 후배 여성장관들에게 조언과 당부, 그리고 한국여성의정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수희 특화된 정치아카데미를 운영했으면 한다. 한국여성의정은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이 회원이니 가장 훌륭한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 진출할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산파역할을 했으면 한다. 여성들의 커리어 매니지먼트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 생물학적 숫자도 중요하지만 젠더 마인드로 무장한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야 성주류화 실현이 가능하다.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



“ 장관이나 의원 자리에 오른 여성들은 많은 여성들이 노력해서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니 당연히 이후에도 다른 여성들의 디딤돌이 되어야한다는 각오로 일을 했으면 한다.

백희영 앞선 여성의 성공은 뒤에 오는 여성의 기회를 만든다. 여성 장관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장관이나 의원 자리에 오른 여성들은 많은 여성들이 노력해서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니 당연히 이후에도 다른 여성들의 디딤돌이 되어야한다는 각오로 일을 했으면 한다. 학자로 지내다 장관이 되자 청문회부터 국회 대응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누가 오리엔테이션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당시 정무수석이 많이 조언을 해주었다. 정치경험 없는 여성들에게 언론 대응이나 국회 질의 방법 등 속성 과외를 시켜주면 좋겠다. 여성의정이 여성 네트워크 장(場)이자 플랫폼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연숙 여성의정이 여성인재 풀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 맞는 단계별 교육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예산과 인력이 문제다. 전직 장관으로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신낙균 철저하게 부처 업무를 파악해서 집행 원칙을 세우고 본인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 감동 받는 것은 권위 없이 실천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문제를 객관적으로 하면 부처내 신뢰를 마련할 수 있다.

김금래 여성을 정책결정 자리에 올리려는 건 여성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국가정책에서 여성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자리에 올라가서 “여성 보다는 전문가다”라면서 여성문제나 성평등 문제를 기피하려는 것을 볼 때 허망하기도 하다. 모든 여성장관들은 성평등과 성주류화에 기여해야 한다.

김명자 내가 하는 일에 남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게 최고능력이다. 남성 인식을 바꾸고 여성문제 해결하는데 동반자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남성장관들과 대립하기 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면 성공할 것이다. 장관은 한 부처에만 머물지 않고 국정운영자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될 것이다.

사회자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분 한분의 경험이 너무나 소중한 여성계 자산임을 느끼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후배 정치인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의정이 중심에 서서 여성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 🍎

백희영 전 여성가족부장관



역대 정부 여성장관 현황

(1948. 8 - 2017. 5. 8)

정부	부처	이름	정부	부처	이름
이승만 정부	상공부	임영신	국민 (김대중) 의정부	보건복지부	주양자
	공보처	김활란		김모임	
	무임소	박현숙		문화관광부	신낙균
윤보선 정부	-	-		환경부	손 숙
박정희 정부	-	-		김명자	
최규하 정부	문화 교육부	김옥길		여성특별 위원회 위원장	윤후정
전두환 정부	보건 사회부	김정례	강기원		
노태우 정부	정무제2 (여성)	조경희	백경남		
		김영정	여성부	한명숙	
		이계순	국무총리	한명숙	
		김갑현	법무부	강금식	
문민 (김영삼) 정부	정무제2 (여성)	권영자	참여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부	김화중
		김장숙		여성(가족)부	지은희
		김윤덕		장하진	
		이연숙	환경부	한명숙	
	환경처	황산성	법제처	김선옥	
	교육부	김숙희	이명박 정부	여성(가족)부	변도윤
	보건 사회부	박양실		백희영	
		송정숙		김금래	
	박근혜 정부	보건 사회부	송정숙	보건복지 (가족)부	전재희
환경부				진수희	
해양수산부				유영숙	
여성가족부				윤진숙	
문화체육 관광부	송정숙	송정숙	여성가족부	조윤선	
				김희정	
문화체육 관광부	송정숙	송정숙	문화체육 관광부	강은희	
				조윤선	

주) 국무총리 1명, 장관 등 11개 부처 43 회 41명 (2명 중복)

문재인 정부 여성장관 (6월 현재)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여성의 정치화, 정치의 여성화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증가는 남성을 앞지르고 있으며
 촛불과 개헌 등 주요 정치적 이슈에 대한여성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보여준 범여성계 연대활동은 성평등국가 담론과
 동수민주주의를 제안하며 한국 정치의 새로운 얼굴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 혁명은 탄핵을 넘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산적한 정치 과제 해결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은 더욱 정치화되어야 하고
 정치는 보다 더 여성화되어야 한다.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한국여성의정 전문위원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는 총 4247만9710명이었다.¹⁾ 여성 유권자 (2143만 7021명)가 남성 (2104만2689명)보다 39만 4332명이 더 많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1036만2877명·24.4%)이 가장 많고 20대 (676만6283명·15.9%)가 가장 적었다. 40대 873만6420명(20.6%), 50대 847만7808명(19.9%), 30대 747만3957명(17.6%) 19세 66만2365명(1.6%)의 분포를 보였다. 투표율은 대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 투표율 26.06%를 포함하여 77.2%로 18대 대선보다 1.4% 증가, 97년 15대 대선 이후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²⁾

1)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29만4633명을 비롯해 거소투표 대상자 10만1089명, 선상투표 대상자 4090명 포함.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4050만7842명)보다 197만1868명(4.9%),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4020만5065명)보다 37만9312명(0.9%) 증가. 행정자치부 통계
 2) 2002년 대선 70.8%, 2007년 대선 63%로 급락, 2012년 75.8% 기록

남녀 간 투표율에서의 차이는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성별 투표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2012년 대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남녀 투표율의 역전현상이 나타났는데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의 경우 남녀 간 집합적 투표율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지난 15년 동안의 성별 투표율을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유권자 투표율이

여성유권자 투표율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가운데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거나 때로는 역전 현상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유권자 투표율 증가폭이 남성유권자의 증가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

여성 유권자의 선거행태와 촛불 시위 현장의 여성 참여자 비율의 증가⁵⁾ 등을 통해 기존의 여성과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상관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2017년 2월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투표율	성별 투표율	비고
2008년 제17대 대선	63.0%	여성 63.1% < 남성 63.3% 19세와 20대 전반, 50대 이상 남자가 높고, 20대 후반 30·40대 여자 투표율 상대적으로 높음	제16대 대선보다 투표율 하락 남자 60세 이상 83.3%, 여자 50대 75.8%, 20대 후반 남·여 39.9%, 46.0%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54.90%	여성 54.7% < 남성 55.1%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 76.3% 가장 높고, 20대 후반 34.9% 기록 여성 60세 이상 64.0%, 20대 후반 39.5% 기록 남자 20대 전반(50.8%, 군 북무로 인한 부재자투표 영향)으로 20대 전반 여자(40.3%), 20대 후반 남자(34.9%)보다 높음.	4회 지방선거 남녀 투표율과 동일한 차이 20대의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남성, 여성 모두 투표율 증가가 두드러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4.20%	여성 53.1% < 남성 55.7% 60세 이상 남성 76.4%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 남성 36.3%로 가장 낮음. 19세, 20대 전반, 40~60세 이상 남성투표율 높고, 20대 후반과 30대에서는 여성투표율이 높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모든 성별·연령대별에서 투표율 증가 20대 전반 여성(24.1% → 40.4%) 19세 여성 (27.3% → 43.4%) 투표율 가장 크게 증가
2013년 제18대 대선	75.80%	여성 76.4 > 남성 74.8 50대 여성 82.9% 가장 높고 20대 후반 여성 69.2% 기록 20대 전반의 여성(46.2%→70.1%)과 20대 후반의 여성(46.0%→69.2%) 투표율 크게 상승	제17대 대선의 투표율과 비교, 모든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상승. 50대와 60대 이상 약 5%p 정도 상승, 20~30대는 13.8%p~22.8%p 상승
2014년 제6회 지방 선거	56.80%	여성 57.2% = 남성 57.2% 20대 여성 48.7%,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율 상승, 70세 이상에서 다소 감소	제5회 지방선거 대비 여성투표율 증가, 상승폭 2.5%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58.00%	여성 57.4% < 남성 58.8% 제19대 국선 비교, 여성투표율증가폭(53.1%→57.4%, 4.3%p) > 남성의 투표율 증가폭(55.7%→58.8%, 3.1%p)	제19대 국선과 비교, 남성 20대 후반(36.3%→47.3%), 여성 20대 전반 (40.4%→54.2%)과 20대 후반(39.5%→52.6%)의 투표율 크게 증가

3) 구분상, 윤상진, 최진영, 20~30대 남녀 유권자 투표율의 성별 역전 현상에 관한 퍼즐, 한국정당학회보 제14권 제2호 2015년(통권 30호)
 4) 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20대 여성 투표율
 5) 서복경, "여성 유권자 참여 뜨거운 촛불 대선" 여성신문 1439호 [W오피니언] (2017-05-10)



자문단 활동을 통해 전개되는 성평등 헌법으로의 개정을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와⁶⁾ 지난 10여년의 침묵을 깨고 대선 과정에서 성평등 이슈를 주제로 한자리에 모인 여성계의 연대 행동 또한 여성정치의 얼굴을 바꾸는 전향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를 주제로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 정책 간담회’를 추진한 범여성계 연대 기구는⁷⁾ 단체 간 협의를 통해 OECD 최악의 남녀임금격차 해소 방안, 여성대표성 강화 및 남녀동수내각 실현, 점차 다양해지고 증가 추세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그리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와 예산 배분 등의 문제를 성평등 분야 5대 핵심 주제로 정하고 토론회 형식을 빌어 후보들의 정책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⁸⁾ 5대 과제 이외에도 여성의 좋은 일자리는 어떤 영역에서 얼마나 만들어 낼 것인가

지, 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임기 중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남성의 육아 휴직 참여율을 높일 것인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를 추가로 요구하고,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여성혐오’의 원인과 해결방식에 대해, 2015 일본 군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한 입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과 산업분야에서 성차별을 어떻게 줄여나갈 계획인지까지 대통령 후보들과 심도 있고 폭넓은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이제 대선을 치른 여성계의 시선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로 모아졌다.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남녀임금격차를 임기 중 OECD 평균인 15.3%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내각 구성 시 장관관을 포함하여 30%에서 출발해서 임기 중 단계적으로 남녀동수 내각을 실현하고 대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 국가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젠더폭력방지 전담 기구를 마련하여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및 이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했으며, 1인 가구 여성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과 좋은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및 노후보장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남녀동수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의 기능 강화와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병설 운영

6) 고질적이며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평등권 강화를 목표로 국가의 성평등 실질적 실현 및 현존불이익 개선 적극적 조치 의무, 성평등의 고용, 노동, 임금,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 명시, 공직 진출에서 남녀 동등한 참여 촉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모성보호조항을 개정하여 출산·양육 지원으로 개정하고 일과 생활 양립 보장 등의 내용을 제안함.
7)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5개 회원단체, 한국YWCA연합회 52개 회원 YWCA,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7개 지방연맹 149개 지부(이상 가나다 순)가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한국여성경제자총협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가배울 등 모두 200개 여성단체가 참여함.
8) 동 간담회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석했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과 ‘성주류화’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안별 세부 추진 계획과 동력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동수민주주의를 향한 여성인재 등용이 시작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⁹⁾

이 모든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조차 쉽지 않지만 비판도, 그렇다고 낙관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짓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 즉 ‘정치적 인간’을 탄생시킨 프랑스 혁명이 여성은 철저히 배제한 일부 남성들을 위한 미완의 혁명이었듯, 탄핵을 넘어 적폐청산을 외치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시켰던 ‘촛불 혁명’ 또한 시작에 불과하며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30년의 변

화를 담아 낼 헌법 개정 등 완성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로서의 여성시민의 개입 없이 그저 가능성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남성을 앞지르는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증가와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해 상대적으로 커진 여성들의 목소리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며 국제사회의 진일보한 성평등 정책 사례들 또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⁰⁾

촛불 혁명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여성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남녀 동등한 민주주의(parity democracy)가 현실이 될 때 비로소 촛불 혁명은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여성의 얼굴을 한 정치’를 위해 여성은 더욱 정치화되어야 하고, 정치는 지금 보다 더 여성화되어야 한다. ♀



9)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여성참여율은 17.6%로 6명에 그쳤고 책임자급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 조건 중 특정 성별의 60% 초과를 금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http://www.womennews.co.kr/news/114503>
10) 올랑드 정부에 이어 새롭게 선출된 프랑스의 엠마뉴엘 마크롱 정부의 동수내각 구성과 하원선거에서의 남녀동수공천 사례, 아이슬란드와 독일의 남녀임금격차해소를 위한 동일임금인증법안 및 공정임금법 등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 대통령 후보의 도전 의미와 과제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교수(정치학)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정권 교체 열망이 투표 열기로

이번 19대 대선 투표율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제15대 대선 최종 투표율 80.7%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로 18대 대선 투표율(75.8%)보다 1.4% 포인트 상승한 77.2%였다.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내가 참여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 투표제도 투표율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사전투표 성별 투표율을 보면 남성이 55.05%, 여성이 44.95%로 남성이 10.1%p나 많았다. 출구조사 득표율을 보면 남성의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39.1%, 홍준표 후보 지지율은 26.6%인 반면, 여성의 문후보 지지율은 42.0%, 홍후보 지지율은 23.2%로 여성의 문 후보 지지율이 높았다.

문지마식 투표에서 미래의 가능성에 소신 투표로

문재인 후보는 41.1%의 득표로 2위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24.0%)보다 557만표 더 많이 얻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21.4%의 득표로 3위에 그쳤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각각 6.8%와 6.2%를 득표했다. 비록 두 자리 수 득표에 실패했지만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심 후보는 선거 초반 지지율 1-2%로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TV 토론을 통해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명쾌하게 밝힘으로써 '사랑스러운 심상정'이라는 뜻의 '심블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방송 3사의 19대 대선 KEP 공동 여론조사팀이 지난 5월 3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대선 TV 토론회에서 어느 후보가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심 후보는 41.2%의 압도적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0대는 그 비율이 무려 51.0%나 됐다. 심 후보의 선전으로 진보 정당 부활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심상정 후보의 선전으로 여성의 실패가 아님 확인하다

심상정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는 41.2%가 '부패와 비리를 청산할 수 있어서'(25.0%)였고 문재인(38.8%) 후보를 선택한 비율보다 높았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 후보는 시대정신에 가장 적합했던 후보였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한국갤럽은 4월과 5월에 대선 후보 중 '경제, 사회복지, 남북 관계, 국가 위기 상황 대처'를 잘 할 후보는 누구인지, '변화와 쇄신, 신뢰, 공감' 측면에서는 누가 강점을 보이는지 알아봤다. 후보별 이미지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코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심 후보는 TV 토론 후 이미지 7개 평가 모든 분야에서 상승했다. 특히 심 후보는 공감 분야에서 2배 이상(8% → 17%) 상승했다. 변화와 쇄신 분야에서도 심 후보는 4월(4%)보다 3배 이상(14%) 이상 상승했다. 남북관계와 국가 위기 대처 분야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사회 복지 분야에서도 4월 10%에서 5월에는 24%로 크게 상승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집권당 남성 후보와 소수당 여성 후보인 심상정 후보간에 정책 공약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들이 남성과 비교해 정책 수행 능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인 심상정 후보의 선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는 결코 여성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더불어 성 평등 국가 건설이 시대정신이며 동시에 새 정부의 핵심 국가 과제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

후보자별 이미지 변화 분석

	2017년 4월 2주(11-13일)						2017년 5월 1주(01-02일)					
	문	홍	안	유	심	무	문	홍	안	유	심	무
경제	26	5	29	8	2	29	24	11	11	17	6	24
사회 복지	33	6	21	2	10	28	26	10	12	5	24	23
남북 관계	39	11	18	4	1	27	38	18	9	6	3	24
국가위기 대처	39	11	19	4	1	26	39	18	10	6	4	23
변화와 쇄신	28	6	17	3	4	21	26	11	24	6	14	19
신뢰감	35	7	30	5	5	18	32	14	18	8	11	17
공감	30	7	24	4	8	26	25	14	13	6	17	24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57호(2017년 5월 1주) - 대선 후보 지지도, 후보 이미지.



가족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



이진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사

우리는 누구나 안다. 가족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가족이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족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을. 가족은 특정한 이념이나 프레임 속에 가두어진 관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온전히 생활현실의 한 단위으로써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들만 늘 가족의 이상형으로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누구든 가족이다

사회 속에는 핵가족 외에도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 그리고 사실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의 그늘 속으로 밀려나 있다. 그리고 핵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녀의 돌봄과 노인 부양 그리고 일가정 양립문제 등 쉽지 않은 문제들과 매일 당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어떠한 유형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한국사회이다. 이러한 상황이 형성되게 된 배경에는 가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특정가족을 선별적으로 지지하며, 가족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지체(lag)되어 있는 가족정책의 현실 부정합성이란 문제가 중심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주체로서 가족을 확고히 위치지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적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한국사회가 오늘날 가족의 변화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가족들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토대가 되는 건강가정기본법부터 재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대상의 보편성(universality), 영역과 범위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급여수준의 적정성(adequacy)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건강가정기본법은 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한계들을 내재하고 있다. 우선, 건강가정기본법의 제3조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건강가정을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가족의 범위와 건강가정의 개념에 대한 규정은 이미 법안의 제정과정 때부터 많은 논란을 야기했었던 이슈였다. 이 법조항들을 보면 이 법은 오늘날의 가족변화현상을 '해체'라는 위기적 또는 위험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배제성은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정책적 용어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은 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을 제2장 '건강가정정책'에서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한 내용과 수립절차 및 행정추진주체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을 뿐이고, 제3장 '건강가정사업'은 타 법률들(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거나, 현행 관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로 인해 저소득 가족이나 노인부부 또는 독거노인가구, 그리고 한부모가족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성이 높은 가족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은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서서는 전혀 해결될 수가 없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 이외에도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큰 흠결은 가족정책이 아동돌봄정책, 즉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행되는 보육정책(맞춤형 보육과 양육수당)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지 못하고,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또한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가족정책과 보육정책 그리고 청소년 교육정책이 각기 분절되어 있고, 보육과 교육을 가족의 관점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책적 수행능력이 미흡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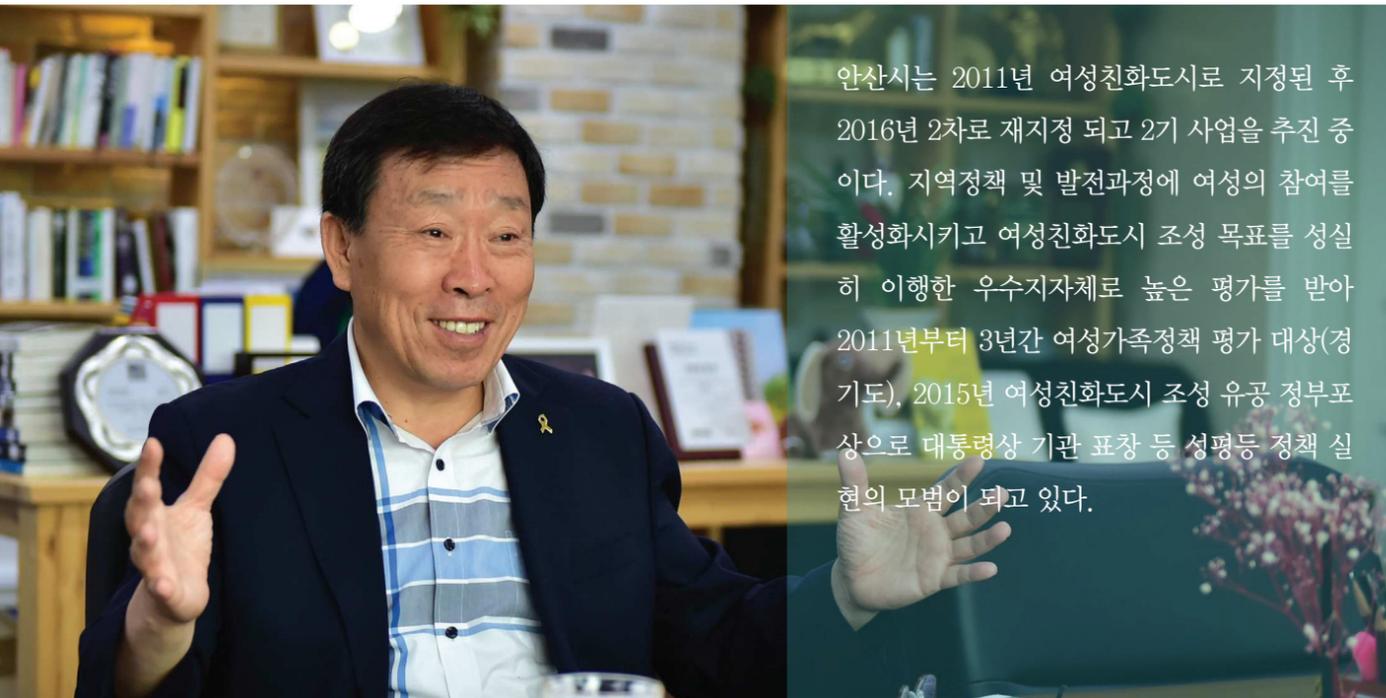
독일의 가족부(BMFSFJ) 장관이었던 Renate Schmidt는 "가족정책은 궁극적으로 가족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그들이 선택한 가족형태 속에서 그들의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한 바가 있다.

현행 가족정책은 분명 Schmidt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고, 다양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정의롭지 못하다. 가족들이 각자의 형태 안에서 행복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후속세대의 돌봄과 교육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이 보편성과 포괄성 그리고 적정성을 지향하며, 법과 제도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즉, 가족정책은 우선 다양한 가족들을 포용하며, 모든 가족들이 친밀성과 평등이라는 토대 위에서 자녀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정책은 정책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서 노동시장정책과 교육정책 그리고 주택정책까지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은 가족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재정적 투자를 강화하여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가족들이 생활이나 돌봄문제 등으로 동반자살을 하는 등의 비극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여성의정은 '성평등 정책 우수지역 탐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츰츰한 안전망의 도시, 안산시의 성평등 정책을 들여다본다.

제종길 | 안산시장



안산시는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2016년 2차로 재지정 되고 2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정책 및 발전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를 성실히 이행한 우수지자체로 높은 평가를 받아 2011년부터 3년간 여성가족정책 평가 대상(경기도), 2015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정부포상으로 대통령상 기관 표창 등 성평등 정책 실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안산시 만들기

안산시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여성·아동의 안전지표를 개발 완료하고 안전조례를 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민·관·경이 연합하여 셉티드 마을 안전사업으로 형광페이스트 물질 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안전 FOOT-SOS 비상벨과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했으며,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 325곳에 노란발자국을 설치했고, 전국 최초로

어린이 안전지킴이 로보캡 순찰대와 어린이 실버 안전지도원 실시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안산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

안산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사회적 돌봄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 집을 건립, 운영하고 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80.8%가 산업단지 내에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24시간 열린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육아 나눔터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보육 OK지원센터를 설치, 365일 운영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사업으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안산

안산시는 '여성기업인 지원조례'를 제정, 여성기업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으로 가점을 부여(8점)하고 이차보전액 0.25% 추가 보전해주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 여성 기업에 10%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기업 제품 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업체로 선정되면 가점 부여(5점)하고 있다. 또한 특례보증서 발급 시 총보증액의 1%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지원하고, 홍보마케팅·판로개척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 여성 기업에 10% 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여성 창업 지원과 여성 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2기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청년여성과 여성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도 추진할 계획에 있다.

INTERVIEW 제종길 안산시장이 말하는 여성정책

Q 안산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여성정책 수립이 잘 돼 있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데 특별히 여성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지요?

A 안산시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의 가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는 이웃과 소통하고 관계를 확장하며 지역의 공동체를 지탱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발휘하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을 참여하게 하고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Q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A 안산시는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아동·여성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많아 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범죄 취약 시간대인 야간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늦은 귀가를 하는 여성들의 신청을 받아 인적이 드문 길을 동행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실

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도 있어서 일평균 74명 정도의 여성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또한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 사업을 작년부턴 시행중입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관내 우범지역의 마을지도를 만들고 안심귀가 골목지원 BLE 태그를 설치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Q 안산시에서는 성인지 시민강사 양성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A 안산시는 2013년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강사를 양성해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성평등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최종 10명의 강사를 선발해서 활동 중입니다. 시민 강사들은 교육 과정에서 시민의 요구사항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정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제안도 하며, 지역 주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일자리로 발전시켜서 시민강사 협동조합 설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정은 '성평등 정책 우수지역 탐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성이 만드는 따뜻한 삶터, 대구광역시 모범 수성구를 찾아가다

이진훈 | 대구 수성구청장



대구 수성구는 '더불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수성'을 위한 ROSE(Renew Organization Safe Empowerment) 프로젝트를 통해 1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젠더전문가와 함께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준비 중이다.

수성구 여성일자리의 허브기관, 수성여성클럽

'수성여성클럽'은 일자리사업의 롤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이진훈 구청장은 취업률을 높이고 경제활동율을 높이려면 여성의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는 평소 소신으로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3년부터 여성취업 발굴과 연계를 위하여 각종 빅데이터를 이용, 여성이 원하는 직업훈련과 트렌드를 연구하여 매년 새로운 직업훈련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2017년에는 '힐링푸드전문가 과정'을 포함 5개 과정 100명의 직업교육훈련을 진행했다. 2014년에는 40명의 조합원으로 '우리 동네 여행로즈협동조합'을 창립하여 지역 여성의 재능을 일자리로 연계시키고 있다. 2015년에는 '수성가족공예협동조합'을, 2014년에는 바리스타사업단 '카페디로즈'를 만들어 2호점을 개업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여성 19명이 바리

스타로 일하고 있다. '수성여성클럽'은 취업 4,413명, 창업 50건, 구인등록 12,407명 등 여성 일자리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안심보육을 위한 환경조성

수성구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수성구내 구립어린이집은 4개소로 1.9%에 불과했지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4곳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개원하였고, 올해 추

가로 7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더불어, 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숨은 일꾼 '로즈서포터즈'가 3기를 맞아 성 평등, 안전, 건강, 여성참여 등 4개 분야 50명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013년부터 시작된 '로즈서포터즈단'은 제1기 96건, 제2기 97건 등 성인지 관점에서 생활 속 문제점과 불편한 사항들을 직접 발로 누비며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발굴했다. '로즈서포터즈'는 여성친화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 평등한 수성구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

INTERVIEW 이진훈 구청장에게 여성정책을 묻다.

Q 여성 일자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지역의 여성을 많이 만나 보았는데 한결같이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며 취업을 희망했습니다. 곧바로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여성의 재취업, 일하는 여성의 가사, 그리고 육아지원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성구 여성의 환경에 맞는 특단의 일자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 대안으로 2013년에 '수성여성클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도 직장에서 적응하도록 지도하고 그밖에 다른 문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Q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A 여성일자리 창출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을 신청했는데, 국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정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어렵게 「수성여성새일센터」 지정을 받았지만, 국고와 대구시에서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수성구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여성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18억원을 통과시키기 위해 구의회 의원을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했고, 구 의회의 도움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여성 일자리 사업은 어렵사리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국고와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어 더 안정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수성구는 의사결정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수성여성클럽 개관 3주년 기념식 및 일자리포럼

A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보니 여성 공무원들은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을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진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23.1%에 머물렀지만 올해 3월에는 36.4%로 확대되었고, 올 연말까지 40%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도 22%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4급 이상 국장급 여성공무원은 6명이고, 수성문화재단의 도서관장 4명 중에서 2명을 여성으로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야지요.

세계는 이미 동수민주주의 시대로!

구정은 | 경향신문 국제부장

스웨덴 외교장관 마곳 발스트림은 2014년 10월 취임하면서 “외교정책에서 여성주의를 가장 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여성주의가 외교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얻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힘든 일”이며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스웨덴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 인권, 여성, 환경, 노동 등의 가치는 ‘국익’ 앞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나가는 것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장관에 강경화 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임명한 것이 ‘쇼킹’했던 이유도 그것이었다.

강 장관은 유엔 재직 시절 미얀마의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가 난민들의 거주 실태를 조사해 노예상태에 가까운 박해를 강력하게 비판한 적 있다. 국제회의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각국이 나 몰라라 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포용적인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 지명 인선을 발표하면서 “강 후보자는 외교부에서 비 외무고시 출신으로는 첫 여성 국장을 지냈고 한국 여성 중에서 유엔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우리나라 최초·최고 여성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 외교 전문가”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이들이 이런 파격 인사에 얼마나 저항할 지는 짐작이 간다. 예전처럼 내놓고 “여자라서 안 돼”라고 말하는 대신에 좀 더 세련된

이들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인도주의 인권 외교를 해온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정세가 엄혹한데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외교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고 나올 것이다. 특정 조직이나 분야에서 ‘주류’의 문턱으로 여겨지는 자격시험, 예를 들면 고시를 통과하지 않았거나 학벌 혹은 직급이 주류의 기준에 못 미친다 생각하는 인물에게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들이댈 것이다. 지금까지 유리천장을 공고하게 굳혀온 그 방식 그대로.

그러나 국제무대에 이미 여성 외교수장은 많이 있다. 미국에서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콘돌리자 라이스,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을 맡았다. 호주의 줄리 비숍, 인도의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네시아의 레트노 마르수디, 아르헨티나의 수산나 말코라,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모두 여성 외교장관들이다. 아프리카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미비아, 르완다 등 여러 나라의 외교 수장이 여성이다. 미얀마에서는 대통령 위의 ‘상왕’인 아웅산 수지가 외교장관 직을 맡고 있다.

유럽에는 여성 국방장관들이 많다. 독일 국방장관은 일곱 자녀의 엄마로 유명한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이고,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2012년부터 예닌 헤니스-플라스체르트가 맡고 있다. 이탈리아에는 고교 교사 출신으로 국방장관이 된 로베르타 피노티가 있다. 스페인에서도 지난해 여성 장관 마리아 돌로레스 데코스페달이 취임했다. 노르웨이, 보스니아, 슬로베니아 국방장관도 여성이다. ‘여성 국방장관’이 아직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국방의 책임을 짚어진 여성들은 많았다. 잘 알려진 인도의 인디라 간디는 총리 재임 시절 2년간 국방장관을 겸직했다. 간디와 함께 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또 다른 여걸이었던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 역시 국방장관을 지냈다. 일본에선 지금 극우파 정치인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가 방위상을 맡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월 새 내각 명



1 스웨덴 외교장관 마곳 발스트림 2 대만장관 오드리 탕
3 이란 부통령 마수메 에브테카르 4 한국 외교부장관 강경화

단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남녀 동수 내각을 만든 것이다. 마크롱은 대선 유세 때 “유권자의 53%가 여성인데 국회에 진출하는 여성비율은 채 30%가 안 된다”면서 성 평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 약속을 지켜 각료직 18개 중 9개를 여성에게 맡겼다. 6월 총선에서 마크롱의 정당 ‘전진하는 공화국(Republique en Marche)’은 남녀 비율을 일대일로 맞춘 지역구 후보자 명단을 내놨다. 총선 결과는 ‘압승’이었다.

문 대통령도 대선 기간 내내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에서 시작해 점차 높여겠다고 했다. 남녀 반반 내각으로 유명한 곳은 캐나다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015년 남성 15명, 여성 15명으로 이뤄진 내각을 발표했다. 캐나다 역사상 처음이었다. 성비를 중요하게 고려한 이유가 뭐냐고 기자들이 묻자 트뤼도는 “지금 2015년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을 질타한 우문현답이었다. 남

녀 성비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다양성이 각료 인선의 우선적인 원칙이 됐다. 입각 당시 30세로 가장 젊었던 메리엄 몬세프 민주제도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이고 법무장관 조디 월슨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원주민 대표를 지냈다.

지난해 대만에서는 첫 여성 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이 취임했다. 그의 인사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장관급인 디지털 정부위원이 된 ‘천재 해커’ 탕핑(唐鳳)이었다. 탕핑은 당시 35세에 중학교 중퇴가 최종학력인 트랜스젠더였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실리콘밸리에서 19살에 창업을 했다. 여성으로 전환한 것은 24살 때였다. 대만은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이란에는 이미 1990년대부터 마수메 에브테카르라는 여성 부통령이 있었다. 개혁파 모하마드 하타미 정부 때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부통령을 지낸 에브테카르는 하산 로하니의 중도 온건파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3년 9월 다시 부통령을 맡았다. 셰이크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총리는 지난해 2월 국가 개조를 앞세우며 새 내각을 발표했다. 행복부와 관용부를 신설했고, 삼마 빈트 수하일 알마즈루에이를 청년 담당 장관으로 임명했다. 당시 22세, 세계 최연소 장관이었던 삼마는 서구식 교육을 받고 세계화된 ‘아랍권 신여성’을 대표한다. 뉴욕대학교 아부다비 캠퍼스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불평등을 연구했다.

여성을 주요 직책에 앉힌다고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징적인 조치’가 의미를 갖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이 사회의 변화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성별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고민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공동체의 마음이 깊어지고 생각이 넓어진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 🌸

하늘끝 땅끝 맞닿은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

문재인정부에 바란다 모든 국가정책에 성평등 의지를!



김선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지난 5월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말씀이다. 매일 매일의 삶속에서 불평등과 불공정과 불의를 경험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많은 여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약속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모든 일들의 과정이 공정하고, 그래서 정의로운 결과를 온 국민에게 가져다주는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정”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대한 바람을 적어본다.

우선 문재인대통령 첫인사에서 여성인사수석의 임명을 보며 기분이 참 좋았다. 장관 30% 여성에서 시작하여 동수내각을 임기 내에 이루겠다는 약속의 확고한 실천의지로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총 4명의 여성장관이 임명 내지 지명되었고, 2명의 처장이 임명되었다. 무엇보다 외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보건처장 등 종전의 남성영역에 첫 여성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공직에서의 성별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태리, 호주, 일본 등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영역이었던 국방장관에 여성을 임명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내에 동수내각까지 가는 동안 앞으로 꽤 많은 수의 첫 여성장관이 계속 배출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10여 명의 수석보좌관회의에는 1명의 조현옥 인사수석만 여성이다. 비서관과 행정관의 여성참여는 어떠할까? 대통령은 취임 후 바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특사를 파견했으나 대표에도 대표단에도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 유엔에서 여

성의 참여원칙을 체득한 강경화 외교장관이므로 앞으로의 모든 외교분야에서의 여성참여를 기대해 본다. 또한 차관 인사에서는 21명 중 2명만이 여성이었다. 인수위 성격을 갖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시겠다는 일자리위원회에도 여성은 매우 적었다.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정부의 각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여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각의 여성비율을 30%로 시작해서 임기 내에 50%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표적인 직위에 대한 약속이므로 이 약속의 원칙과 철학이 장·차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의 고위직과 모든 국가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여성신문 보도에 의하면 현재 332개 공공기관의 장 중 여성은 24명으로 7.2%라고 한다. 이제 새정부와 함께 현재 공석인 경우, 곧 임기만료인 경우, 연내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등 100여 기관에 새로운 기관장이 임용될 것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장들이 종전대로 소위 고위 공무원 출신의 관피아가 된다면 여성에게는 기회가 적을 것이다. 고위직 공무원에 여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기용한다면 준비된 여성들이 충분히 많을 것이고, 여기에도 최소 30%의 룰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현재 공공기관에는 기관장뿐 아니라 이사와 감사도 매우 적고 고위직도 매우 적다. 여성 직원은 30%이지만 차장급은 7%, 부장급은 0.7%, 임원급은 0.1%라고 한다. 이는 사기업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이다. 공공기관들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책을 더 모범적으로 실천할 책임이 있다.

지난 2005년 첫 여성법제처장(당시 장관급)으로 임명되어 일해 본 필자는 남성중심 조직에서 여성기관장의 어려움도 느꼈지만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기관장은 조직문화의 변화에 가장 빠른 영향을 줄 수 있고 해당

업무에 젠더 관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차관 등 고위직에 여성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이들의 성평등한 리더십으로 조직의 문화가 바뀌고 일하는 과정이 혁신되고 소통되는 유연한 조직이 됨으로써 국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기업에 여성임원이 늘어나면 재무성과도, 기업가치도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국가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위직에 여성이 늘어나면 조직의 다양성과 젠더통합적 리더십으로 행정성과가 높아지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남녀동수내각 공약과 그 철학을 모든 국가행정에서 실천함으로써 성평등의 실현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에서 젠더통합적 리더십으로 글로벌화와 4차 산업의 대 변혁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평화로운 선진국 대한민국을 이루어 성공하는 대통령,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원하고 기대한다.

끝으로 새로 임명되는 여성장관에게 1990년대 초 독일에서의 경험을 들려주고자 한다. 필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독일의 할당제(독일 베를린 주정부는 1990년대 초 이미 여성장관 30%였음) 등 여성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출장 중이었다. 당시 법무부장관 초청을 받아 여성장관들과 여성의원들의 조찬모임 자리에 참석했다. 당을 초월한 여성들의 모임이었고 “마녀들의 아침식사(Hexen Fruestueck)”라는 이름을 붙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서로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리도 이제 30%로 막 시작한 여성장관들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협력하기 위한 이런 만남의 시간을 가져 보면 좋을 것 같다. 한국여성의정이 중간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



송희경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얼마 전, 영화 '히든 피겨스'를 보았다. 미국과 러시아가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던 1960년대, 천부적인 수학·과학적 재능을 가진 흑인 여성들이 NASA 최초의 우주궤도 비행 프로젝트에 선발되어 펼치는 도전기였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800m 떨어진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고, 공용 커피포트조차 용납되지 않은 냉혹한 현실이었지만, 그녀들은 NASA 최고의 수학자, 프로그래머, 엔지니어의 꿈을 이뤄냈다. 영화를 보며 고군분투하는 주인공들의 천재성과 강인함에 가슴이 뭉클했다. 50년이 지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어떨까. 영화 '히든 피겨스'의 현실 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성 인력의 가능성과 한계는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WEF(세계경제포럼)는 지난해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2020년까지 700만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200만개의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 고용 쇼크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사라지는 일자리가 여성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분야에 몰려 있고,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는 기술전문직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으로 풍부한 감수성과 소통 역량을 지닌 여성 인재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여성은 역사적으로 하드웨어 산업보다 소프트웨어 산업 쪽에서 강점을 보였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감성이 발달했다는 점에서 융합과 창조 시대에 적합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컴퓨터 명령문을 만든 프로그래머 역시 여성인 '에이다 러브레이스'였다.

글로벌 여성 인력 트렌드

세계 각국도 여성 R&D 인력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국 산업계에서는 엔지니어 출신 여성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이 즐비하다.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GM의 메리 배라 회장은 전기 공학을 전공하고 회장 자리에 올랐다. 구글 클라우드 사업을 지휘하고 있는 다이앤 그린 역시 유명하다.

창업국가 이스라엘 역시 첨단산업 분야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35%에 달할 정도로 높다. 여성의 기업가정신을 평가한 수치는 가장 높고,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는 이스라엘의 여성 R&D 지원 정책에서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이스라엘은 박사 후 프로그램을 밟고 있는 여성 연구자들에게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는 박사 후 과정에 있는 여성들이 육아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연구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여성 R&D 인력 양성에서 의외로 앞선 국가는 인도다. 문화적인 영향으로 성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인도는 현재 IT 인력의 20%가 여성이며, 그 중 여성 CEO는 6%나 차지하고 있다. 인도에서 이공계에 대한 대우가 높고 IT 기업들이 전체산업에서 비중이 큰 것을 감안하면 의미가 큰 수치다. 인도 IT 기업들은 여성 인력들의 능력 및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내 탁아소를 운영하고 탄력적 근무시간 운영, 육아휴직 등의 제도로 여성 인력들을 지원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국가 지원 절실

우리나라도 R&D 여성 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만, 관리자 비중은 수년 째 답보 상태인 것이 아쉽다. 2016년 기준, 여성 관리자는 대학 10.8%, 공공기관 8.1%에 불과하다. 민간기업 연구기관의 경우 5.8%로 더욱 저조하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17%로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 르완다 65%, 세네갈 50%, 아이슬란드 48%로 세계 각국의 여성의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 특정 직군에 여성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심각하다. 결혼과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 위험을 겪는 여성들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교사, 약사 등의 직군에 몰려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쏠림 현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에 전가된다. 결국 여성들이 겪는 사회문제가 해결될 때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국가적인 지원과 사회 전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여성의 생애 주기별로 단계마다 필요한 육성책과 교육 그리고 일자리 연계 등의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연간 2천만 원의 인건비와 연구 활동

비를 최장 3년 제공한다. 그러나 5년간 이 사업의 수혜인원은 약 200여명으로 석박사학위 소지 경력단절여성(17,000명)의 1.2%에 불과하다. 사업 고도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며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야마다 경력복귀 후 연구 환경 재적응과 성과 창출에 걸리는 절대적인 시간이 다르므로 지원 기간의 유연성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슈퍼맘이 아닌, 슈퍼육아공동체를 구축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저출산 3중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직장어린이집 설치규제 완화·인구 문제 총괄하는 인구처 신설 등을 골자로 했다. 임신에서 보육까지 원스톱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사랑센터'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행착오를 두려워 말자

우리 여성들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과학기술은 하나의 정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융복합인 사고가 필요하다. 한 시대를 품어왔던 노키아, 코닥, 모토로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데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다. "Sit at the main table" 많은 여성들이 조직에서 위기관리를 하고 성과를 내는 메인 테이블에 주저 없이 들어가길 바란다. 후방 지원에 머물지 말고 직접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직군에 도전해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모든 전문 영역에 종사하는 모든 여성들이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사고를 통해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력으로 우뚝 설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 먼저 고민해본 선배들을 찾아 많이 얘기 나눠보길 권한다. 여성과 함께 발전하는 길에 기꺼이 동행하겠다. ♡

여성에게도 나라다운 나라를...

임금차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성별에 의한 임금차별조사 및 판단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큰 틀에서는 헌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지난 2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저임금 문제였다(24.2%). 그 뒤를 이어 비정규직 차별이 13.1%, 고용안정이 10.1%, 성차별·성희롱이 8.7%로, 응답자들은 근근이 먹고 살만한 급여에, 열정을 다해 일해도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언제든 잘릴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토로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보편이고,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의 보조자로서 상대적 저임금과 유연한 고용이 정당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은 단순한 고용형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 무시, 부당한 업무평가, 잡무 스트레스, 의사결정 소외, 성희롱 등 다층적인 차별을 겪고 있었다. 2003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으나(32.6%→32.8%), 성별 격차는 심화되었다.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7.6%에서 26.4%로 소폭 줄었으나, 오히려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39.6%에서 41.0%로 늘어났고, 특히 15~24세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36.4%에서 47.1%로 대폭 상승했다.(한국노동연구원,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

이는 OECD 국가 중 1위라는, 그것도 큰 차이의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한 한국의 남녀임금격차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남녀임금격차의 주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조주은, 이슈와 논점 58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종이 열악하고,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임금수준이 더 낮은 임시·일용직 비율은 49.7%에 이른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35.7%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에 지위가 낮은 직종에 재취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여성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참여율 자체보다는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직종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직무분석 시스템도 미비하다. 우선 임금차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성별에 의한 임금차별 조사 및 판단을 위한 지침(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분야의 노동에 대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큰 틀에서는 헌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정부 정책 기조에서 성평등 관점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에 있어서 성인지적 검토와 기획, 실행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정책에서도 성평등 일자리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신경아, 일터민주주의와 성평등, 2017).

채용에서부터 배치, 교육훈련, 임금, 승진, 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성주류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확대와 격차 해소를 총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 등과의 유기적 연계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도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정부의 모성보호 강화에 따른 기업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면 오히려 여성 고용 확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이해를 동반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정규직 외 노동자들의 모성과 부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민간부문에의 개입도 수반되어야 한다. 여전히 부족한 공

공부문의 여성 고용률과 양질의 일자리 향상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부문 변화를 추동해 내야 한다. 더 이상 사기업이라는 핑계로 소극적 자세만을 취해서는 안 된다. 조달이나 조세제도 인센티브 등 적극적 정책으로 민간을 리드해야 한다.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30인 미만 기업에 취업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는 부처 개편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평등 취업규칙 보급과, 확대되는 근로감독관들의 우선 배치를 통해 고용평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집중 공약하였고, 일·가족·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차별과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 시정을 약속했다.

이와 발맞춘 주요 입법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 여성노동자의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사용제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비롯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지표관리와 성별고용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돌봄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유리천장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는,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의도 진전되어야 한다.

본인은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여성관리자 고용 확대와 고용시장 진입의 문턱 자체를 낮춰주기 위한 여성청년고용의 무할당제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리고 본인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살리기 5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성에게도 나라다운 나라이어야 한다. 🍎

늙은 어부에게 기다림을 배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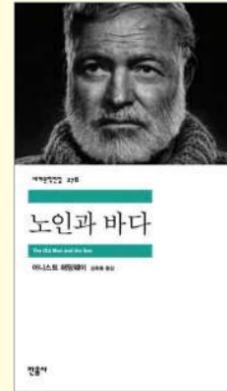


유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나의 길을 찾고 그렇게 걸어가 보는 거야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었다. 집에서, 골목에서, 학교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음악에 대한 꿈을 품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막연한 꿈은 현실 앞에서 방향을 잃었다. 가야할 길이 보이지도 않았고 남들이 가고 있는 현실적인 길이 넓고 편하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중학생이 되기 전, 음악에 대한 꿈을 일찌감치 접어야 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꿈을 꾸는 것만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첫 좌절이었다. 그렇게 꿈을 접은 나는 중학생이 되면서 책 읽기에 재미를 붙였다. 이름난 작가라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 읽었던 것 같다. 돌아보면 참 어설피고 치기어린 책읽기였지만 한 권 한 권 읽은 책이 늘어나는 것에 스스로 만족했던 시절이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도 그 시기에 읽었던 책 중 하나였다.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멕시코 만류에 살고 있는 노인 산티아고는 어부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노인은 매일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가지만 84일 동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고 최악의 불운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며 '살리오',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된 늙은 어부(끝장난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 오랫동안 노인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소년도 결국 아버지의 권유로 다른 배를 타게 된다. 그렇게 85일째 되던 날, 드디어 노인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청새치가 걸렸다. 하지만 청새치는 먼 바다로 노인의 배를 끌고 나갔고 노인은 3일 밤낮을 물고기와 사투를 벌인다. 먼 바다 한가운데서 마침내 노인은 청새치를 잡게 되었으나 돌아오는 길에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의 습격을 받게 된다. 상어떼를 쫓아내기 위해 작살과 칼로 사투를 벌이지만 이미 지쳐버린 노인에게는 역부족이었고 청새치는 양상한 뼈만 남게 된다. 그렇게 뼈만 남은 청새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피곤에 지쳐 잠이 들고, 사람들은 노인이 잡은 물고기의 뼈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著
민음사

다소 얇은 책과 어렵지 않은 줄거리로 인해 책은 쉽게 읽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저 한 노인이 물고기와 싸우고 그마저도 상어에게 뺏겨 결국엔 성과 없이 지쳐서 돌아오는 새드엔딩 스토리, 그리고 당시 느끼기에 전체적으로 심심하고 지루했던 내용 때문이었는지 <노인과 바다>는 책장 한 쪽 구석으로 밀어두게 되었다.

20년이 지난 90년대 초, 숨 가쁘게 살았던 이십대를 지나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부모가 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앞으로 찾아가야 할 새로운 길은 막막했다. 무언가 나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과 강박감, 무력감에 빠져들던 그 무렵, 나는 책장에 꽂혀있던 <노인과 바다>를 다시 찾게 되었다. 왜 이 책을 다시 읽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무언가에 홀리듯 책장 앞에 섰고 눈앞에 있던 이 책을 자연스럽게 꺼내보게 되었던 것 같다. <노인과 바다>를 다시 읽어보며 과거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어렵듯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어렸을 적 느꼈던 그 감정이 아니었다. 지루함이 아닌 잔잔함이 나를 감쌌고, 노인이 인고한 시간 속에 내 시간이 함께 흘러갔다.

책을 읽어 내려가며 인생이란 게 단번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울림이 계속되었다. 마음이 평온해진

이제 오십을 훨씬 넘긴 지금,
아직도 종종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그 때 느꼈던 노인의 인고를 다시 한 번 곱씹어본다.

나도 내가 찾고 있는 '물고기'를 위해 기다림이 필요하고
언젠가 그 '물고기'를 만나게 될 것임을.

나는 나를 이렇게 다독였다. '은혜야, 인생은 허겁지겁 사는 게 아니야. 나의 길을 찾고 그렇게 걸어가 보는 거야.' 그렇게 나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85일 만에 잡은 청새치를 상어에게 전부 빼앗겼다고 해서, 설령 청새치를 끝내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산티아고의 인생이 패배한 것은 아니었다. 새드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노인은 망망대해에서 사투를 벌이며 어부로서 자기의 꿈과 자존감을 지켰다. 그리고 자신의 오두막에서 사자 꿈을 꾸며 잠들었던 노인은 다음 날도 물고기를 낚으러 갈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신념이었고 삶의 이유였기 때문이다.

이제 오십을 훨씬 넘긴 지금, 아직도 종종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그 때 느꼈던 노인의 인고를 다시 한 번 곱씹어본다. 나도 내가 찾고 있는 '물고기'를 위해 기다림이 필요하고 언젠가 그 '물고기'를 만나게 될 것임을. 물론 그 기다림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계속되는 것이고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사는 것이리라. 나의 꿈과 신념을 지켜나가는 데 힘을 쏟고, 실패하더라도 슬픔과 좌절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또 다시 도전할 것이다. 🍀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세상을 그리며



황인자 의원
제19대 국회의원

공직을 떠나니 정치가 손짓하다 되돌아보면, 공직에서 벗어나는 게 싫었는데 어느 새 정치에 몸담게 되었다. 공직을 떠나 있는 동안 행정 경험을 살려 정치에 나서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 중앙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두루 거치면서 1급까지 오른 여성공무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23년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에 항상 유의해 왔던 나로서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이 있었던 데다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었는데, 그때 공직 선배 한 분의 말씀이 생각났다. 무색무취한 게 공무원 황인자의 장점이자 약점이라고……. 어떤 이는 내가 오히려 무색무취해서 승진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는 그렇게 무색무취한데도 승진할 수 있었다는 게 오히려 기적이라고 했다. 소위 말하는, 끈이 없었고 줄을 서지 않았던 것이다, 한 눈 팔지 않고 그저 일만 묵묵히 하는 일벌레라고 소문이 난 것은 그런 연유에서 일 것이다.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처럼 만에 생활의 여백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고 있다. 요즘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민간단체(NGO) 활동을 하는 틈틈이 서울의 돌레 길을 걷고 집 근처 공원도 산책하는 여유가 생겼다. 가능한 한 마음을 비우고 물건을 버리고 산다.

남편의 격려에 용기를 내다 막상 공직을 떠나고 나니 평소 아내의 직장생활에 거리를 두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던 남편이 내 등을 떠다밀었다. 당신은 이제 내가 외조해줄 테니까 정치를 하라고……. 대학 때 캠퍼스 커플로 만난 남편은 연애시절 내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아, 그랬었지. 내가 정치학을 공부했구나.’ 당시만 해도 나는 정치에 뜻을 두고 있었다, 정치학자나 국회의원이 되고픈 꿈이 있었다. 그 꿈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고이 접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의 권유에 힘입어 접어두었던 꿈을 펼쳐보자고 용기를 냈다. 여고시절 특별활동으로 웅변을 해서 전국웅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탔던 기세도 되살려보기로 했다. 망설이다가 2007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이회창 후보 캠프에 지원했고,



청소년과 함께 안전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캠페인(강남역 10번 출구 / 2017. 5. 20)

그 뒤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자유선진당 창당에 참여하게 됐다. 중앙여성위원장을 거쳐 최고위원에 선출됐고 당 대표직에도 도전했다. 마침내 2013년 말 비례대표직 승계를 받아 19대 국회의원이 됐다. 나름 짧지만 굵게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한다.

연꽃처럼 아름답게 정치하고 싶다 물론 나를 아끼는 사람들 중에는 ‘까마귀 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고 하면서 이전투구 하는 정치의 세계에 들어서는 것을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정치도 연꽃처럼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연꽃잎 위에는 한 방울의 오물도 머무르지 않는다. 물이 연잎에 닿으면 그대로 굴러 떨어질 뿐이다. 물방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다. 연꽃이 피면 물속의 시궁창 냄새는 사라지고 향기가 연못에 가득하다. 한 자락 촛불이 밤의 어둠을 가시게 하듯 한 송이 연꽃은 진흙탕의 연꽃을 향기로 채운다. 나는 정당생활과 의정활동 내내 연꽃처럼 정치를

하고자 항상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다.

일·가정 양립으로 동동거리다 1980년대 공직 초기 나는 두 남매를 키우느라 정신없었다. 시부모님의 지원과 남편의 협력이 없었더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육아 고민 끝에 공직을 그만두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나도 아이들 문제에 이르러서는 늘 마음이 아프다. 두 아이에게 잔소리할 시간조차 없어 어려서부터 속수무책으로 방임된 내 사랑하는 두 아이. 아이들 뒷바라지라고 해봐야 초등학교 과목물에 ‘참 잘했어요!’ 사인을 해주고 가정통신문에 나온 준비물을 챙겨준 기억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두 아이 다 삼수 끝에 대학에 진학했다. 지금은 각자 원하는 길을 찾아 열심히 살고 있다. 나로서 ‘스스로 알아서 큰 것’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워킹맘 모두가 겪는 공통의 아픔이 내게도 역시 진하게 배어 있다. 그런 까닭에 공직생활 내내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발을 동동거렸고, 의정활동 첫 번째 정책간담회 주제를 ‘워킹맘’으로 택할 정도였다. 그만큼 일하는 여성의 문제는 나 자신을 비롯한 대한민국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느덧 주요한 국정과제로 떠올랐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하면서 양성평등을 밀어붙일 기세다. 그 어떤 정부보다도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아 박수를 보낸다. 청와대가 인사하는 것을 보니 공약한 대로 대통령 임기 내 남녀동수 내각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아이는 나라가 키우겠다’고 공약했으니 이 또한 지켜보고 기대해볼 만하다. 엄마든 아빠든 눈치 보지 않고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어야 진정한 일·가정 양립이 되는 것이다. 굳이 슈퍼맨·슈퍼우먼이 아니더라도 보통 부모라면 누구나 일하면서 아이도 키우는 그런 세상을 그려본다. 🍷

여성정치인의 남편으로 산다는 것은

여성정치인의 남편으로 산다는 것은 꽤나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기쁘게 이 불편을 감내할 생각이다. 아내가 '나라를 나라답게',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치고, 정치를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박완기

(사)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

'백혜련 남편'

2016년 봄, 내가 입은 옷의 등과 어깨엔 전혀 새로운 단어가 새겨졌다. '백혜련 남편'이라고 큼직하게 글씨가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거구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남편이라고 적힌 옷을 입고 대로를 활보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토론회, 기자회견, 언론 기고 등 20여년이 넘는 시민 사회 활동을 통해 익숙했던 내 이름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의 남편으로 활동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백혜련 남편'에 대해 30-40대 여성유권자들이 가장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셨다. 아파트 놀이터나 카페, 식당 등에서 주부들 서너 명이 모여 있는 곳에 남편이라고 커다랗게 적힌 옷을 입고 나타나면, 처음에는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명함 건네고 남편이 외조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부러운 시선으로 바뀌고 마침내 부인을 위해 수고한다며 칭찬을 해주고 단체박수로 마무리까지 해 주는 일이 적지 않았다. 나에겐 대단히 고마운 일이었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나라 대다수의 남편들이 부인을 제대로 도와주거나 배려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웃지 못할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백혜련 남편'이라는 옷을 하루 종일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생각처럼 만만한 일은 아니다. 창피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기 위해선 얼굴도 두꺼워야 하고, 밥 먹을 때나 걸어 다닐 때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움츠리지 않고 대처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선거 후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인 모임에서 이제 '백혜련 남편'이 아니라 자연인 박완기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면서 공식적인 외조의 역할은 끝났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정치인을 부인으로 둔 나의 일상은 평범하지 않다.

백혜련 의원

(사)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

제20대 국회의원 (수원을)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지역위원장

전 수원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나라에 내놓은 아내

아내가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일 상에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집안의 아침풍경이다. 수원 금곡동에서 여의도 국회까지는 아침 이른 시간이면 1시간 이내에 도착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2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도 벗어나고 국회에서의 조찬모임과 각종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아내는 매일 아침 6시면 집을 나간다. 아내가 새벽에 국회로 출발하고 나면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을 깨우고 아침밥 먹여 등교시키는 것은 나의 일이 된다. 저녁 늦게 자고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일어났던 여유 있던 아침시간이 이제는 꼭두새벽부터 서둘러야 하게 되었고 어느덧 아침형 인간으로 체질이 바뀐 듯하다. 이제 우리 딸과 나는 아침시간에 나라에 내놓은 아내의 빈 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익숙하게 적응해 있다. 주말에도 아내는 내놓은 사람이다. 토요일엔 지역의 각종 행사와 경조사를 챙기느라 바쁘고 일요일엔 조기축구회, 체육대회, 종교행사 등 가야 할 곳이 넘쳐난다. 그래서 주말에도 다시 아내 없이 우리 가족들의 일상을 챙겨야 한다. 세탁기 돌리고 빨래 잘 펴서 너는 것쯤은 이제 눈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어쩌다가 일이 일찍 끝나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날이라도 생기면 운 좋은 휴일이다.

초심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내가 결혼 후 사법고시를 준비해 합격하고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시민운동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었다. 수원경찰서에서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중앙경찰서에서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 담당 국장으로, 경제정의실현과 재벌개혁을 담당하는 정책실장으로, 다시 경기경찰서의 사무처장으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시민운동을 펼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글을 검찰

박완기의 아내
백혜련이어서 행복합니다.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사표를 낸 그날 이후 우리 집안에서 남편과 부인의 사회적 역할은 바뀌기 시작했다. 검사 사직의 변이 당시 벤츠여검사 사건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남기며 아내는 민주통합당의 1호 영입인사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작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이제 우리 집안에서 사회적 역할과 가사에 대한 역할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내는 나라와 사회에 내놓은 사람이 되었고 집안의 사소한 일은 내 역할이 되었다.

그러나 기쁘게 이 불편을 감내할 생각이다. 나라를 위해 내놓은 우리 아내의 인성과 사회를 바라보는 끈은 시각과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라를 나라답게',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치고 정치를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나의 불편함은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여성정치인의 남편으로 외조는 숙명인 듯하다. 아내에 대한 애뜻한 마음과 깊이 있는 신뢰가 이 숙명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원천이다. 🍀

2018년 지방선거와 여성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여성의 정치참여로부터!



유순희

부산여성뉴스 대표이사, 발행인

여성의 시대가 온 것처럼

“양성평등요? 여자들이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밖에서는 ‘네비 양’(네비게이션 기기내 도로정보를 알려주는 여성보이스에 대한 속칭)의 말을 잘 들어야 고생 안 한다 듯이, 집에서도 여자들 말을 잘 들어야 다들 편하대요. 경제권도 마누라들한테 있고, 남자들 요즘 정말 ‘힘’ 없어요.”

“양성평등요? 아직 먼 것 같아요. 요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남성들이고 세상을 좌우하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도 남성들이잖아요. 지난 10여 년간 세상은 마치 여성의 시대가 온 것처럼 요란했지만 그동안 여성권한척도가 나아진 것도 없잖아요. 여성 당사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도 여전히 낮고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소리다. 새천년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부터 불어닥친 여풍과 함께 어렵사리 유리천장을 깨고 금녀의 영역에 진출하기 시작한 여성들이 하나둘 주목을 받으면서 세상은 앞서 여성의 시대를 예단하고 확신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여성의 세기는 좀처럼 시원하게 펼쳐지지 않았고 여전히 더디고 아주 느리게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다르다

앞서 예를 든 상반된 이야기처럼 여성의 지위와 권한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성평등 문화의 이중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우선 여성의 지위에 대해 가정과 사회 안팎에서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다르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꿈쩍 못하

는 남편들도 사회(바깥)에서는 여성들을 ‘업수이’ 여기고 남성우위의 종속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능력 있는 여성들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고, 여성들의 성과를 낮게 평가하기도 한다.

사회 각 분야 여성의 진출은 또 어떤가. 아직도 미흡하다. 특히 정치권내 여성의 진출은 더 말할 나위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인권보장과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도입한 우리의 제도와 정책은 상당히 앞서있는데 비해 사회에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지수는 여전히 낮은 현실이다. 제도와 정책이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와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인식수준이 앞서가는 제도와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양성평등 사회는 멀게만 느껴지고, 여전히 반쪽의 사회구성원인 여성들의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늘려야

방법은 있다. 여성의 정치영역 진출의 확대다. 제도권내 작은 단위에서부터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늘려가는 일이다. 여성들이 사회를 변화시켜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여성들은 스스로 준비하고 변화에 대처해나가는 능력이 부족했다. 스스로 준비하고 도전하기보다 ‘그들’에 의해 선택되는데 집중했고, 좁은 자리를 놓고 여성들 간의 경쟁에만 급급했음을 반성해야 한다.

여성 정치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8년 지방선거가 곧 다가온다. 다가올 2018 지방선거야말로 ‘남녀동수 의회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 여성계가 힘을 모아 준비를 해야 한다. 생활정치영역에서부터 잘 훈련되고 전문성을 키운 여성인력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향후

남녀동수법 등 제도가 마련되었을 때 적어도 사람이 없어 ‘수’를 채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회에서 의정경험을 쌓고 네트워크를 갖추고 정치력을 키워온 ‘한국여성의정’의 선배 여성정치인들이 후배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칠 계획이라니 고무적이다. 여성들의 정치권 진출이 수적으로도 열세하고 시기적으로도 늦은 만큼 여성정치인들은 연습생 신분으로 의회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실전이다. 최소한 총칼을 다룰 줄 알고 전쟁터에 뛰어들어야 하듯이 실전정치마당에 뛰어들 여성예비정치인들이 ‘일당 백’의 역할을 감당해낼 자세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문 여성인력을 양성해야

아울러 기존 정치권에서도 능력 있는 여성예비일꾼들을 잘 발굴하여 국가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당을 펼쳐줘야 한다. 필요하면 다각도로 지원해가면서 양성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현역 여성정치인들도 여성정치지방생들을 경쟁자의 시각에서 볼 게 아니라 상호 교감하며 발전을 견인하고 연대의식으로 이끌어줘야 한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끈끈한 자매애가 형성될 때 여성발전은 희망이 있다. 이와 함께 여성정치인들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전문 여성인력도 함께 양성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아픈 역사를 무던히 견뎌내며 진정한 패배와 승리를 배우면서 대립과 논쟁의 가시밭길을 딛고 성장해왔다. 짧은 시기 혼란의 아픈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보다 성숙해졌다고 믿는다면 과신일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성숙한 민주주의가 여성의 정치참여로 완성되어가길 기대한다. 🍷

초심을 잃지 않고 초선 같은 열정으로! 구리시 최초 여성 시의회 의장 민경자 의원



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

구리시 최초 여성 시의회 의장 민경자의원은 민의를 살피는 민생(民生)정치, 소통을 통한 상생(相生)정치, 현장주주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생생(生生)정치의 3생(三生)정치실현을 위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회 수장으로서 구리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여성정치인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경자 의장은 재선의원으로서 의장이라는 감투 보다는 의회운영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바른 정치와 협치를 하고자 당당히 목소리를 내며 동료의원들을 설득해서 구리시 최초 여성의장의 자리에 올랐다.

민의장은 “구리시 최초의 여성의장으로서 기대감의 무게와 책임감도 컸기에 내가 아닌 구리시의회 의위상을 생각하며 행동해 왔습니다.”라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오며 시민이 필요로 하면 어디든 달려가 시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모델로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민의장은 “저는 여성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에 발전하는 여성정치인의 모습을 담아내고, 지역의 새로운 후배 여성정치인들을 위해 좋은 본보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보

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진실을 담보로 한 돌봄과 나눔, 배려의 의정 활동을 꿈꾸고 있다.

민경자 의장은 “정치인은 참으로 많은 빛을 지고 산다. 유권자들의 기대와 믿음을 통해 선택되었기에 그 빛을 갚기 위해 쉽 없이 발로 뛰고, 끊임없이 공부를 통한 자기 발전을 해야 한다”라며, 시민들의 삶이 편안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더 많이 현장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장으로 맞은 1년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과 시민 화합을 저해하는 현안에 대하여는 초당적으로 구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시의회의 활동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본회의뿐만 아니라 임시회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으며, 2016년 9월부터는 구리시수화통



올해 어버이날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찾은 민경자 의장

역센터와 한국수어통역·방송 지원 MOU를 체결하여 관내 8백여 청각·언어 장애인들도 의정활동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의정참여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갈 수 있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와 25회에 달하는 간담회를 실시하며, 민의의 전당인 구리시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나가고 더 가까이에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의원으로서 7년과 의장 1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여성들의 섬세한 감수성과 부지런함, 열정, 정의로움이 생활정치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지역발전에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작년 구리시장보궐선거 당내 경선에 참여하여 고배를 마시기도 한 민의장은 구리시장의 교체로 인한 갈등으로 공직자들이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있어 화합과 바름의 아이콘인 민의장이 적절한 역할을 해주기를 많은 시민이 요구하고 있어 구리시장에 다시 한 번 도전하고자하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비정상의 시대를 견어내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발랄한 반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민의장은 누구보다 나은 부지런함, 근면함, 열정, 청렴, 바름을 기초로 약자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생활정치를 하는 의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한 경험을 살려 시민이 공감하는 리더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성평등에 앞장 선 남성의원 백재현 의원을 만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 갑)

촛불에서 시작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초기 내각을 여성 30%로 꾸리고, 임기 내 남녀동수 내각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밝혀 많은 국민들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이미 5년 전 이러한 ‘양성평등 내각’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시의원, 도의원, 재선 광명시장을 거쳐 3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 2년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백재현의원, 여성정책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리라 기대해본다.

성평등 정책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광명시장으로 8년간 일했던 경험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시장으로 일할 당시에는 지금보다 관내 단체 분들과 더 교류가 많았습니다. 봉사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필요한 활동을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여성이라는 것을 그때 절감했는데, 그분들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고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다보니 대부분의 관리직급이 남성으로 채워졌다는 점도 양성평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수 있었던 계기였지요. 이를 계기로 광명시청 사상 최초의 여성 국장을 발탁하는 등 여성의 공직 진출 기회를 더 열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의정활동 중 성평등이나 여성 인권 향상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요?

2012년부터 2013년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요, 여가위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 성평등 수치가 바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노력을 촉구했어요. 이는 평등의 문제

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확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가부가 책임 있게 일해 줄 것을 주문했죠. 또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 및 ‘역사 바로 세우기’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족한 역사 인식으로 인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제대로 못 지켜드린 점은 지금도 아쉬워요.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 정서와도 부합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저는 광명시의 ‘여성친화도시’ 선정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가 ‘여성친화도시’ 인데요,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되는 것은 물론, 관련 정책을 펼치는 일도 돕고 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직 현실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난 2012년 11월 우리나라의 성 평등격차가 세계에서

도 하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당시 우리나라의 국무위원 17인 중 단 2인(11.7%)만 여성이라는 점과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그보다도 저조하다는 점도 지적했었습니다. 나아가 대선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장·차관 임명에 있어 ‘양성평등 내각’을 꾸릴 것을 주문한 바도 있는데,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조차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국가의 양성평등은 요원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죠. 양성평등 내각을 꾸려달라는 그 제안을 한지 5년여가 지났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우선 여성 장관 30%부터 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긍정적 시작으로 봅니다. 더 많은 여성 인재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 변화가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작돼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천이 있다면요?

사실,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들도 상위 직급인 보좌관 및 비서관은 아직까지는 남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죠. 앞으로 차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 의원실의 경우에는 보좌관 두 명 중 한 명, 마찬가지로 비서관도 두 명 중 한 명을 여성으로 발탁해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이는 300개 의원실 중에서도 대단히 드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보좌진들이 남성들의 시각에서는 보지 못했던 문제와 대안을 찾아 주기를, 남성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활동도 기대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여성이라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부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양성평등에 다가가기 위한 계획이나 각오가 있으시다면요?



그동안 19대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및 당 예산결산위원장을 거쳐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면서 국가의 전체 예산을 여러 해 살펴본 경험이 있다는 점, 국세청근무를 거친 세무사출신의 재정세제전문가라는 점, 정책위의장 재임 시 누리과정 예산 등 여야간 극한 대립 상황에서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이끌어 냈다는 점 등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입된 성인지예산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 세밀히 살피고자 합니다. 🍎

성평등에 앞장 선 남성의원 김명연 의원을 만나다

(자유한국당, 안산시 단원구 갑)

김명연 의원은 여성과 소외된 계층을 위해 지역 곳곳을 누비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형 정치인이다. 국회 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역에서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 등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활동을 펼쳐왔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하고,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남성들의 인식변화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김명연 의원,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성,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위에 들어갔었는데, 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응급의료 문제, 추모사업 등 안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지고 챙겨야 했습니다. 여성, 가족문제, 청년문제 등은 여성가족위원회 업무가 연관되어 있어 상임위를 겸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가위는 대부분 초선, 비례의원이 많고 전, 후반기까지 하는 의원이 적어서 재선인 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비, 청소년 보호처분시설 확충 예산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 20대에서도 전반부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당시 저에게 온 문자 한 통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한 선생님께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과 휴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자였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성인 저로서는 여성 청소년의 생리문제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2015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줄 방법을 꼭 찾아달라고 당부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꼭 지원 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업의 후원을 받아 지원하기도 했었지만,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 언론을 통해 일명 ‘깔창 생리대’ 문제가 부각되어 작년 추경예산에 반영(30억원)되도록 애를 썼고, 금년에도 본예산에 30억원 반



영하여 29만명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들을 다수 발의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무엇인가요?

20대 국회 들어 성범죄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다문화 가정의 지원을 돕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할 경우 받는 임금이 남성의 63.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동일 임금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든 변화는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가 최하위권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성 격차를 줄이는 것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인위적인 여성 우대정책은 오히려 갈등만을 부추길 수 있죠. 우선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다르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육아’는 여성의 역할, ‘경제활동’은 남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남성도 육아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여성도 가정의 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천장을 뚫을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와 여성대표성 확대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여성 정치인이 남성 정치인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무대 보다는 지역에서 현장 경험도 탄탄하게 쌓고 치열하게 준비하고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국회에 현장 실무형 여성 정치인이 많이 진출해야 정부를 설득하고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당 내에서도 여성인재 발굴에 힘쓰고 정책 입안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비례대표 선출 기준도 세워야 하고요. 보수적인 정당에서도 여성 정치인이 많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여성 정치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동티모르 파병안에 찬성합니다!



이미경
15-19대 국회의원
한국여성정책 공동대표

이미경 전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국회의원 5선을 했다. 박순천, 박근혜, 추미애 의원과 함께 5선 최고기록을 함께 하고 있다. 이미경 전 의원은 이외에도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다. 1999년 9월 28일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UN평화유지군 파병동의안’에 대해 당시 소속정당이면서 야당인 한나라당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졌다. 사진에서 보듯이 야당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홀로 기립투표를 하고 있다.

인권을 위해 나홀로 기립투표

당시 여당(김대중 정부)은 국군부대를 동티모르에 UN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하는 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었고, 당시 야당(한나라당)은 동티모르와 교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교민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다.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함으로써 반대 ‘당론’ 시위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 때 당시 초

선이었던 이미경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발언석을 향해 걸어 나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경 의원과 얼굴이 마주치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같이 나갑시다.”라고 만류했지만 이미경 의원은 꺾이지 않고 UN평화유지군 파병안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동티모르인들이 당한 참혹한 억압과 인권침해의 현실을 알면 그들로부터 우리는 눈을 돌릴 수 없습니다. 외신기자들의 비디오테이프로 학살의 만행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도 우리의 80년 광주와 너무 흡사합니다. 이번 파병은 우리 국군에게도 ‘폭력과 학살에 대항하는 인권군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군대’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이미경 전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모두 빠져나가고 여당의원만 남은 의석을 둘러보며 가슴이 저머왔다.”고 표현했다. (한겨레 21 1999.10.14. 제278호) 발언에 이어 이미경 의원은 여당의원들과 함께 찬성 의견에 기립투표를 한다.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다

이미경 전 의원은 당초부터 한나라당과는 여러 가지로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 1998년 12월 전교조 합법화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반대하라는 당의 지침을 무시하고 찬성 쪽에 가담했으며, 1999년 4월 노사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정부 여당안을 부결시키겠다는 당론을 어기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당기위원회를 열어 당원권을 정지시키기도 했고, 결국 한나라당은 동티모르 파병동의안 건으로 이미경 의원을 한나라당에서 제명한다.

당시 이미경 의원이 이와 같은 독자적인 정치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권문제에 대한 자기소신과 확신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당론투표와 소신투표 논쟁이 있었고, 정치개혁을 위한 법안실명제, 표결실명제의 전면적 시행과 교차투표가 활성화되었다.

소신 있는 여성정치인으로 우뚝 서다

이미경 전 의원은 1950년생으로 부산에서 출생하여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앞장서고 졸업 후에는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긴급조치법 1호 위반으로 옥고를 치루고, 여성의 인권신장과 권익보호에 앞장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창립을 주도했다. 또한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초대 총무를 맡아 1990년에 처음으로 일본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미경 의원의 정계입문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노무현, 제정구, 이부영, 유인태 의원 등이 주도하는 꼬마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꼬마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하여 한나라당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한나라당 의원이 되었다.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맞지 않는 정당에 속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시련을 맞았다.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이미경 의원은 이후 꺾이지 않고 소신을 지키다 결국 동티모르 파병 찬성 건으로 제명되었다. 그리고 이후 16대 총선에는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하여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고 17대, 18대, 19대까지 서울 은평 갑 지역구에 출마하여 내리 당선되었다.

이미경 전 의원은 국회에서 첫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첫 당내경선을 통한 최고위원, 첫 여성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국회부의장 경선에 출마했으나, 유리천장을 깨지 못하고 아쉽게 패배하였다.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권교체와 당의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는 요즘이다. 🌸

글 | 정현주(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



‘좋은 일을 하는 곳’ 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회사 만들고파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이미영 대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정성’을 전면에 세우고 빈곤국가 여성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그 가족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곳이 있다. 2010년 국내에서 ‘공정무역’이란 단어 자체가 어색하던 때 이미영은 국내 최초 공정무역을 기치로 한 사회적기업 ‘페어트레이드 코리아’를 설립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한 페어트레이드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4억 원을 달성하고, 지금은 직영점 2곳과 대리점 1곳을 낸 명실상부 소기업으로 성장했다. 개발도상국 여성 생산자와 그 가족에게 ‘원조가 아닌 무역(Trade, not Aid)’으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새로운 삶을 선사하는 것이 이미영이 원하는 길이다.

‘여성, 환경,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처음 환경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1992년 경제정의실천연대(‘경실련’) 산하 환경개발센터에서 활동하면서부터였습니다. 환경과 생태라는 다른 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은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5년 제4차 북경 여성대회가 열렸는데, 12가지 의제 중 11번째가 여성과 환경이었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한 여성과 환경그룹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속한 곳에서 간사단체를 맡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성단체와 환경단체가 모여 같은 주제를 준비하면서 서로에 대해 오해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엔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18명이 함께 북경에 갔을 때, 3만 명이 넘는 여성 NGO가 모여 다 같이 구호를 외치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 없었던 ‘젠더’라는 주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제3세계 빈곤국가 여성들을 돕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2000년부터 여성환경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젠더와 환경에 대한 고민과 관련 활동을 했고, 관심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빈곤국가의 환경문제는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빈곤과 환경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가 너무 많다는 점이 환경 이슈라면, 빈곤국가는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정무역하면 커피나 초콜릿이 먼저 떠오르는데, 수공예 의류를 선택한 이유는?

식품이 친숙하긴 했지만 여성들의 완벽한 경제적 자립을 이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공예는 여성들이 자본없이 시작할 수 있고, 자신의 손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생산과정에 대한 전체적 지식을 기반으로 여성들이 시스템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소비자국가인 일본에서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미 자신만의 시장을 형성해 키워나가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여성 CEO를 만나 한국이 공정무역 바이어국가로 함께하는 것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내 최초 공정무역을 기치로 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10년간 유지해왔는데, 그 비결은?

10년을 유지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대량생산이 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의류의 경우 시즌별로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착한 이미지만으로는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정무역은 기본적으로 가격 프리미엄이 생산자에게 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좋을 수가 없고, 워낙 소량 생산이다 보니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원단을 한국으로 들여와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사업단 쪽에 의뢰해 효율성을 높이고 질도 함께 높이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정무역 사업을 통해 빈곤 국가 여성들의 삶이 달라진 점은?

단체 차원에서 볼 때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굉장히 안정됐습니다. 실제로 임대료 생활하다가 건물을 매입한 분도 생겼습니다. 수익구조에 훨씬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또 네팔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해당 국가는 작은 가내수공업이 대부분이라 최저임금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공정무역 생산자는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주기 위해 따로 교육을 시킨 뒤 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미싱도 제공을 합니다. 생산자가 자신만의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이뤄내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보다 페어트레이드코리아의 매출을 증대해 그만큼 한국시장에서도 임팩트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 저희 생산자들에게도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자체적으로 사회영향 평가를 해봤는데, 공정무역이 추구하는 소셜프리티즘을 비롯해 가격적인 이익과 학교를 지원하거나 다른 사회적기업과 함께 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니 3억3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을 더 정교하게 체크해 사회성과보고서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우리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

나라일이 급한데 암탉, 수탉 가리지 말고 써야지



여성정치의 대모 박순천은

일제시대 선각자적 여성운동가요 독립운동가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건국과 반독재 투쟁 운동에 앞장섰던 정치가였다.

여성으로서 최초로 5선의 국회의원이었으며,

여성 최초의 야당 당대표로서 여성정치인의 대모(代母)이며 1인자였다.

대한민국 여성 정치계 제1인자로 박순천

여성정치인이 낫설던 시절, 박순천(1898-1983)은 선거에서 상대 남성후보자들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야유를 받았다. 그 때마다 “나라일이 급한데 암탉, 수탉 가리지 말고 써야지 언제 저런 병아리를 길러서 쓰겠느냐. 암탉이 낳은 병아리가 저렇게 꼬꼬댁거리니 길러서 쓰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받아 넘겼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박순천에게 붙여진 별명은 많다. 한국의 잔다르크, 큰언니, 박할머니 등이 그것이다. 시대의 격동기를 살았던 ‘여성’ 정치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다. 박순천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일제시대의 선각자적 여성운동가요 독립운동가, 현대 여성정치인의 대모(代母)인 동시에 건국과 반독재투쟁운동에서 현실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을 보여준 정치가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일제말기 친일 경력, 정계 은퇴 후 육영수 추모재단 참여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치가로 부상한 이후에는 여성을 위해 일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평가도 한다.

여성으로서 야당의 간판 정치인이 되다

박순천은 해방정국의 혼란 속에 단체를 조직하고 여성을 계몽하며, 동시에 건국운동을 전개했다. 박순천은 여성지도자들과 함께 1945년 8월 17일 건국부녀동맹을 조직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1946년에 독립촉성부인회를 결성하였고, 1948년 대한부인회 초대회장에 선출되었다. 우리역사상 최초의 ‘여성운동 대변지’였던 ‘부인신보’ 사장이기도 했다. 박순천에게 정계 진출은 여성운동의 수단이었다. 1950년 제2대 민의원 선거에 대한부인회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여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1955년 민주당 창당에 참여하게 되면서 1971년까지 근 16년간을 야당 정치생활을 하게 된다. 이 기간에

박순천은 2차례 민주당 후보로 지역구 의원에 당선되었으며, 무소속 후보와 전국구로 각각 1차례 의원이 되었다. 이 시기 여성국회의원은 박순천을 포함해 3명을 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역사상 최초로 야당의 여성당수가 되는 기록도 세웠다. 1960년 4·19 혁명의 열기 속에 치러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순천은 부산 동구에서 출마,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어 홍일점 국회의원이 되었다.(재선) 1963년 7월에 있는 창당대회에서 민주당 총재로 선출되었고 서울 마포구에서 출마, 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1965년 민주당 창당대회에서 박순천은 다시 총재가 되어 명실상부한 통합야당의 당수가 되었다. 1967년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전국구 위원이 되어 우리나라 헌정사상 전무한 여성 5선 의원이 되었다.

박순천은 1971년 5선 의원을 끝으로 20년 장기간의 정치인생을 끝냈다. 정계은퇴 후에는 경기도 안양 근명학교 이사장으로서 여성교육에 힘썼으며, 국토통일원 고문, 국정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간통쌍벌죄 제정 등 여성권익향상에 앞장

박순천은 1950년대에 여권신장을 위한 입법 추진에 많은 힘을 쏟았다. 2대 국회에서 보사위(保社委)에 속했던 박순천은 근로기준법안 제정 시 여성근로자를 위한 유급 60일 전전·산후 휴가와 매달 1일 휴가 등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했다. 간통의 경우 아내도 같이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간통쌍벌죄’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 법의 심의가 시작되자 많은 남성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쌍벌죄가 통과되면 이중생활을 하던 남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해당 여성도 첩살이 생활이 끊기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당시 널리 용인되었던 축첩의 사회적 악습을 뿌리 채 뽑아버리려는 사회개혁적 의미가

있었다. 결국 이 법안은 3표차이로 가결되었고, 후에 ‘박순천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민법 내 가족법 개정운동을 벌였다. 아들 없는 가정의 재산 상속을 딸에게도 가능하도록 즉, 딸도 호주 상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대 국회에서 임영신과 두 명의 여성의원원이 있었지만 가족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3대 국회에서 민법이 통과되는 단서가 되었다. 제2대 국회에서 박순천은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전력을 다했다고 평가된다.

시대를 앞서 살았던 여성주의적 리더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아직도 전형적인 남성의 영역이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아직도 30%를 밑도는 실정이다. 여성정치인 박순천의 정치활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시대적 한계는 있으나, 박순천은 전형적인 남성사회인 정치영역에서 남성적인 경쟁원리나 처세술, 행동규범보다는 여성주의적 리더십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일제시대 농촌 계몽운동에서 보살핌의 원리, 비권위주의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성향의 소위 ‘여성적’ 리더십을 실천했으며, 해방공간에서는 남녀평등의 여성주의적 목표를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야당 정치 생활에서는 반독재 투쟁을 전개하며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협동과 민주성, 도덕성을 실천했다. 박순천은 “정치란 여성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속 나라의 주도권을 남성에게 맡긴다면 남녀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여성이 정치한다는 편견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글 | 정현주(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

의원님, 어떻게 지내세요?



최영희 제16대 의원

『여성의정 70년사』편찬 평가위원장으로 골몰

최영희 전 의원은 이화여대 간호학과교수, 대한간호협회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학자요, 정치인이다. 최 전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여성위원장을 맡으면서 새천년민주당 당헌·당규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 여성흡수번호 의무화』를 명문화한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었다"고 회고 한다.

퇴임 후 바로 미국 보스턴 칼리지 초빙교수로, 경인여자대학 재단이사,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회 회장 등 후진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현정지』 편집위원으로 8년간의 활동은 기다려지는 날들이었다고 ... 현재는 내년 국회개원 70년을 앞두고, 『여성의정 70년사』편찬 평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평소에는 말을 아끼시면서 회의만 시작되면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는 그 모습은 아마도 20년 전 국회의원 시절 그렇지 않았을까!



김화중 제16대 국회의원

『사단법인 독일유학후원회』를 설립 후진양성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화중 전의원 (16대, 당시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지냈으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단체 및 기업체 특강을 하는 등 의원시절보다 더욱 활발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전남 곡성에 내려가 곡성군수를 지낸 남편 과 함께 독일마을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독일유학을 후원하는 장학사업 단체인 『사단법인 독일유학후원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소외계층 및 교육취약 지역의 학생들에게 독일 유학을 위한 독일어 무료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면서 학생들에게 목표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오늘도 학생 35명이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자랑을 아끼지 않는다. 유학을 지망하는 학생 지도를 위해 바쁜 날들이 새롭다며 학생을 위한 특강을 부탁하는 김 의원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앞장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경숙 전의원 (당시 민주당)은 예쁜 꽃 사진으로 이웃을 즐겁게 하더니 2015년 3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국회 교육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 위원으로 경험 모두를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증진과 차별시정 활동에 쏟고 있다. 크고 작고 다양한 인권문제는 셀 수 없지만 최근 문제되는 사건을 꼽으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 등 기간제 교사가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 인정 건의, 군 장학생 선발 시 여학생 배제 개선권고, 탈모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 등 외모 차별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건의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경숙 제17대 의원

본업인 변호사, 방송평론가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두아 전 의원 (당시 새누리당)은 의원 전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가 다양한 활동 하고 있다. 동국계강 60년 사상 최초 여성 임원으로, 또 방송 평론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대형로펌에서 일 했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으로 북한 인권 관련 시민 단체 일을 하는 등 다양한 변호사 활동 경험이 국회의원 직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 한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다양한 활동,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고, 본 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얻은 것 등 다른 사람보다 일찍(어린나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을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겸손을 잃지 않는다. 앞으로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이두아 제18대 국회의원

세상을 살리는 정치! 정치를 살리는 여성!

한국여성의정은 2013년 설립된 국회의장 산하 법인으로서, 제헌 국회 이후부터 전·현직 여성국회의원이 모여 여성의 정치 발전과 건강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여.야를 초월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여성 정치인의 역량 강화, 교육·홍보를 통한 예비정치인 육성, 유권자 정치의식 함양 교육, 다양한 정책연구 등의 활동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정은 모든 여성계를 아우르며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한국여성의정 2017년 상반기 활동



한국여성의정 제4차 정기총회 개최 (2017. 2. 16)

한국여성의정의 회원인 전·현직 여성국회의원들은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연숙(16대), 이미경(15-19대), 나경원(17-20대), 박영선(17-20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이사 27명과 감사 2명 등 임원 29명을 선출하였다. (제3기 임원 현황 참조)



한국여성의정 제3기 첫 이사회 개최 (2017. 5.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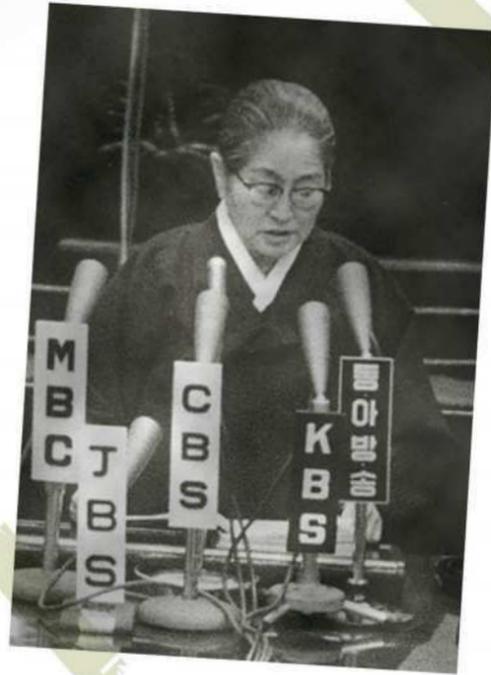
한국여성의정은 제3기 임원 출범이후 첫 이사회를 갖고 헌법 개정 논의· 새 정부 출범 등 여성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국여성의정 5개년 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창립 4주년을 축하하였다.



한국여성의정 제3기 집행부 구성 (2017. 5. 17)

한국여성의정은 제3기를 맞아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영선)를 구성하고, 정책위원회 5개 각 실장 위촉과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위원(10명)을 위촉하는 등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였다. 한편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의정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T/F팀을 구성하여 8월말까지 매주 모임을 갖고 『한국여성의정 5개년 계획 수립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나라일이 급한데 암탉, 수탉 가리지 말고 써야지



여성정치의 대모 박순천은

일제시대 선각자적 여성운동가요 독립운동가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건국과 반독재 투쟁 운동에 앞장섰던 정치가였다.

여성으로서 최초로 5선의 국회의원이었으며,

여성 최초의 야당 당대표로서 여성정치인의 대모(代母)이며 1인자였다.

대한민국 여성 정치계 제1인자로 박순천

여성정치인이 낫설던 시절, 박순천(1898-1983)은 선거에서 상대 남성후보자들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야유를 받았다. 그 때마다 “나라일이 급한데 암탉, 수탉 가리지 말고 써야지 언제 저런 병아리를 길러서 쓰겠느냐. 암탉이 낳은 병아리가 저렇게 꼬꼬댁거리니 길러서 쓰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받아 넘겼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박순천에게 붙여진 별명은 많다. 한국의 잔다르크, 큰언니, 박할머니 등이 그것이다. 시대의 격동기를 살았던 ‘여성’ 정치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다. 박순천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일제시대의 선각자적 여성운동가요 독립운동가, 현대 여성정치인의 대모(代母)인 동시에 건국과 반독재투쟁운동에서 현실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을 보여준 정치가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일제말기 친일 경력, 정계 은퇴 후 육영수 추모재단 참여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치가로 부상한 이후에는 여성을 위해 일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평가도 한다.

여성으로서 야당의 간판 정치인이 되다

박순천은 해방정국의 혼란 속에 단체를 조직하고 여성을 계몽하며, 동시에 건국운동을 전개했다. 박순천은 여성지도자들과 함께 1945년 8월 17일 건국부녀동맹을 조직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1946년에 독립촉성부인회를 결성하였고, 1948년 대한부인회 초대회장에 선출되었다. 우리역사상 최초의 ‘여성운동 대변지’였던 ‘부인신보’ 사장이기도 했다. 박순천에게 정계 진출은 여성운동의 수단이었다. 1950년 제2대 민의원 선거에 대한부인회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여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1955년 민주당 창당에 참여하게 되면서 1971년까지 근 16년간을 야당 정치생활을 하게 된다. 이 기간에

박순천은 2차례 민주당 후보로 지역구 의원에 당선되었으며, 무소속 후보와 전국구로 각각 1차례 의원이 되었다. 이 시기 여성국회의원은 박순천을 포함해 3명을 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역사상 최초로 야당의 여성당수가 되는 기록도 세웠다. 1960년 4·19 혁명의 열기 속에 치러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순천은 부산 동구에서 출마,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어 통일점 국회의원이 되었다.(재선) 1963년 7월에 있는 창당대회에서 민주당 총재로 선출되었고 서울 마포구에서 출마, 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1965년 민주당 창당대회에서 박순천은 다시 총재가 되어 명실상부한 통합야당의 당수가 되었다. 1967년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전국구 위원이 되어 우리나라 헌정사상 전무한 여성 5선 의원이 되었다.

박순천은 1971년 5선 의원을 끝으로 20년 장기간의 정치인생을 끝냈다. 정계은퇴 후에는 경기도 안양 근명학교 이사장으로서 여성교육에 힘썼으며, 국토통일원 고문, 국정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간통쌍벌죄 제정 등 여성권익향상에 앞장

박순천은 1950년대에 여권신장을 위한 입법 추진에 많은 힘을 쏟았다. 2대 국회에서 보사위(保社委)에 속했던 박순천은 근로기준법안 제정 시 여성근로자를 위한 유급 60일 전전·산후 휴가와 매달 1일 휴가 등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했다. 간통의 경우 아내도 같이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간통쌍벌죄’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 법의 심의가 시작되자 많은 남성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쌍벌죄가 통과되면 이중생활을 하던 남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해당 여성도 첩살이 생활이 끊기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당시 널리 용인되었던 축첩의 사회적 악습을 뿌리 채 뽑아버리려는 사회개혁적 의미가

있었다. 결국 이 법안은 3표차이로 가결되었고, 후에 ‘박순천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민법 내 가족법 개정운동을 벌였다. 아들 없는 가정의 재산 상속을 딸에게도 가능하도록 즉, 딸도 호주 상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대 국회에서 임영신과 두 명의 여성의원원이 있었지만 가족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3대 국회에서 민법이 통과되는 단서가 되었다. 제2대 국회에서 박순천은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전력을 다했다고 평가된다.

시대를 앞서 살았던 여성주의적 리더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아직도 전형적인 남성의 영역이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아직도 30%를 밑도는 실정이다. 여성정치인 박순천의 정치활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시대적 한계는 있으나, 박순천은 전형적인 남성사회인 정치영역에서 남성적인 경쟁원리나 처세술, 행동규범보다는 여성주의적 리더십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일제시대 농촌 계몽운동에서 보살핌의 원리, 비권위주의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성향의 소위 ‘여성적’ 리더십을 실천했으며, 해방공간에서는 남녀평등의 여성주의적 목표를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야당 정치 생활에서는 반독재 투쟁을 전개하며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협동과 민주성, 도덕성을 실천했다.

박순천은 “정치란 여성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속 나라의 주도권을 남성에게 맡긴다면 남녀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여성이 정치한다는 편견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글 | 정현주(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

의원님, 어떻게 지내세요?



최영희 제16대 의원

『여성의정 70년사』편찬 평가위원장으로 골몰

최영희 전 의원은 이화여대 간호학과교수, 대한간호협회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학자요, 정치인이다. 최 전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여성위원장을 맡으면서 새천년민주당 당헌·당규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 여성흡수번호 의무화』를 명문화한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었다고 회고 한다.

퇴임 후 바로 미국 보스턴 칼리지 초빙교수로, 경인여자대학 재단이사,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회 회장 등 후진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현정지』 편집위원으로 8년간의 활동은 기다려지는 날들이었다고 ... 현재는 내년 국회개원 70년을 앞두고, 『여성의정 70년사』편찬 평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평소에는 말을 아끼시면서 회의만 시작되면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는 그 모습은 아마도 20년 전 국회의원 시절 그렇지 않았을까!



김화중 제16대 국회의원

『사단법인 독일유학후원회』를 설립 후진양성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화중 전의원 (16대, 당시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지냈으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단체 및 기업체 특강을 하는 등 의원시절보다 더욱 활발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전남 곡성에 내려가 곡성군수를 지낸 남편 과 함께 독일마을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독일유학을 후원하는 장학사업 단체인 『사단법인 독일유학후원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소외계층 및 교육취약 지역의 학생들에게 독일 유학을 위한 독일어 무료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면서 학생들에게 목표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오늘도 학생 35명이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자랑을 아끼지 않는다. 유학을 지망하는 학생 지도를 위해 바쁜 나날들이 새롭다며 학생을 위한 특강을 부탁하는 김 의원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앞장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경숙 전의원 (당시 민주당)은 예쁜 꽃 사진으로 이웃을 즐겁게 하더니 2015년 3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국회 교육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 위원으로 경험 모두를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증진과 차별시정 활동에 쏟고 있다. 크고 작고 다양한 인권문제는 셀 수 없지만 최근 문제되는 사건을 꼽으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 등 기간제 교사가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 인정 건의, 군 장학생 선발 시 여학생 배제 개선권고, 탈모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 등 외모 차별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건의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경숙 제17대 의원

본업인 변호사, 방송평론가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두아 전 의원 (당시 새누리당)은 의원 전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가 다양한 활동 하고 있다. 동국계강 60년 사상 최초 여성 임원으로, 또 방송 평론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대형로펌에서 일 했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으로 북한 인권 관련 시민 단체 일을 하는 등 다양한 변호사 활동 경험이 국회의원 직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 한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다양한 활동,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고, 본 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얻은 것 등 다른 사람보다 일찍(어린나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을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겸손을 잃지 않는다. 앞으로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이두아 제18대 국회의원

세상을 살리는 정치! 정치를 살리는 여성!

한국여성의정은 2013년 설립된 국회의장 산하 법인으로서, 제헌 국회 이후부터 전·현직 여성국회의원이 모여 여성의 정치 발전과 건강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여.야를 초월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여성 정치인의 역량 강화, 교육·홍보를 통한 예비정치인 육성, 유권자 정치의식 함양 교육, 다양한 정책연구 등의 활동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정은 모든 여성계를 아우르며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한국여성의정 2017년 상반기 활동



한국여성의정 제4차 정기총회 개최 (2017. 2. 16)

한국여성의정의 회원인 전·현직 여성국회의원들은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연숙(16대), 이미경(15-19대), 나경원(17-20대), 박영선(17-20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이사 27명과 감사 2명 등 임원 29명을 선출하였다. (제3기 임원 현황 참조)



한국여성의정 제3기 첫 이사회 개최 (2017. 5. 24)

한국여성의정은 제3기 임원 출범이후 첫 이사회를 갖고 헌법 개정 논의· 새 정부 출범 등 여성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국여성의정 5개년 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창립 4주년을 축하하였다.



한국여성의정 제3기 집행부 구성 (2017. 5. 17)

한국여성의정은 제3기를 맞아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영선)를 구성하고, 정책위원회 5개 각 실장 위촉과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위원(10명)을 위촉하는 등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였다. 한편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의정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T/F팀을 구성하여 8월말까지 매주 모임을 갖고 『한국여성의정 5개년 계획 수립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19대 대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시민 대토론회 개최 (2017.4.3.)

한국여성의정과 부산여성정책연대 등 부산지역 여성단체회원과 시민 500여명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오는 5.9일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 (2017. 6.14)

한국여성의정 신임 공동대표 이연숙(16대), 이미경(15-19대), 나경원(17-20대), 박영선(17-20대)은 3기 체제 출발에 즈음하여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의장취임 1년을 축하하며 20대 국회 주요 현안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역대 여성장관 간담회 (2017.6.08)

한국여성의정은 동수헌법과 동수내각 논의에 맞춰 역대 여성장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새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한 평가와 기대, 그리고 여성의정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여성의정 70년사』 편찬 컨퍼런스 개최 (2017. 6. 28)

한국여성의정이 후원하고 이화여자대학 젠더법학연구소가 주최하는 『한국여성의정 70년사』 편찬 컨퍼런스가 학계전문가 및 여성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여성의정 70년사 편찬사업’은 제헌이후 19대까지 여성 국회의원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으로, 이 기록물은 차세대 여성정치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한국여성의정 제3기 임원



이연숙 공동대표



이미경 공동대표



나경원 공동대표



박영선 공동대표

공동대표

성명	대 별	주요 경력	비고
이연숙	16	현)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 전) 제8대 정무 제2장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상임대표
이미경	15~19 (5선)	현)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나경원	17~20 (4선)	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장 전) 판사, 한나라당 최고위원, 대변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17~20 (4선)	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 MBC경제부장·앵커, 민주당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감사

성명	대 별	주요 경력	비고
조배숙	16~18, 20 (4선)	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전)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송희경	20	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전) KT사업단 전무,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	

사무총장

성명	대 별	주요 경력	비고
신명	17	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이사장(법학박사) 전) 고용노동부 고용평등국장 등	이사

제3기 이사

성명	대 별	주요 경력
신낙균	15, 18	전) 문화관광부 장관,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김명자	17	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전) 환경부 장관(이학박사)
김애실	17	현)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경제학박사)
문희	17	현) 한정회 여성위원장, 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한국여약사회 회장(약학박사)
서혜석	17	현)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안명옥	17	현) 국립중앙의료원원장, CHA 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의학박사)
이은영	17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대학원교수(법학박사)
진수희	17~18	현)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순영	17	현) 경기도 교육청 시민 감사위원, 전) 민주노동당 부대표
홍미영	17	현) 부평구청장, 전) 인천광역시 시의원
김금래	18	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혜성	18	현)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객원교수(경영학박사), 전) 청와대 제2부속실비서관
권은희	19	현) 바른정당 대구북구갑지역위원장, 전) 헤리트 대표이사, KT 상무
민병주	19	현) 이화여대 초빙교수(물리학박사), 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박혜자	19	현) 조선대학 정책대학원 초빙교수(행정학박사),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지역위원장
남인순	19~20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심상정	17, 19~20(3선)	현) 정의당 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전) 정치바로아카데미 원장
유승희	17, 19~20(3선)	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행정학박사)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혜훈	17~18, 20(3선)	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바른정당 최고위원(경제학박사)
이연주	19~20	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 변호사, S오일 상무
김삼화	20	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사무총장, 전) 한국여성변호사협회 회장
윤종필	20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전)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준장)

여성 국회의원 현황

구분	계	5선	4선	3선	재선	초선
인원(명)	209	4	4	12	35	154
성명	-	박순천 박근혜 이미경 추미애	김영선 조배숙 나경원 박영선	김옥선 김윤덕 김정숙 전재희 한명숙 박순자 이혜훈 김영주 김현미 심상정 유승희 김상희	(생략)	(생략)

구분	최초 당선	대별 인원 (명)			명 단
		계	지역구	비례대표 등	
합계	209	295	97	198	
1대	1	1	1	-	임영신
2	1	2	2	-	박순천, 임영신
3	1	1	1	-	김철안
4	1	3	3	-	김철안, 박순천, 박현숙
5	0	1	1	-	박순천
6	0	2	1	1	박순천, 박현숙
7	2	3	1	2	김옥선, 박순천, 이매리
8	5	5	-	5	김옥자, 김윤덕, 김현숙, 모윤숙, 편정희
9	9	12	2	10	구임희, 김옥선, 김옥자, 김윤덕, 박정자, 서영희, 윤여훈, 이범준, 이숙중, 이승복, 정복향, 허무인
10	5	8	1	7	김영자, 김옥렬, 김윤덕, 박현서, 서영희, 신동순, 윤여훈, 현기순
11	9	9	1	8	김모임, 김정례, 김행자, 김현자, 문용주, 이경숙, 이영희, 이윤자, 황산성
12	5	8	2	6	김영정, 김옥선, 김정례, 김현자, 김장숙, 박혜경, 양경자, 한양순
13	3	6	-	6	김장숙, 도영심, 박영숙, 신영순, 양경자, 이윤자
14	8	8	1	7	강부자, 강선영, 김정숙, 이우정, 정양숙, 정옥순, 주양자, 현경자
15	10	12	3	9	권영자, 김영선, 김정숙, 박근혜, 신낙균, 오양순, 이미경, 임진출, 정희경, 주양자, 추미애, 한영애
16	15	21	5	16	강숙자, 김경천, 김방림, 김영선, 김정숙, 김화중, 김희선, 박근혜, 박금자, 손희정, 안상현, 안희옥, 이미경, 이연숙, 임진출, 전재희, 조배숙, 최영희, 추미애, 한명숙, 허윤나
17	36	43	10	33	강혜숙, 고경화, 김영자, 김선미, 김승자, 김애실,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현미,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문희, 박근혜, 박순자, 박영선, 박찬숙,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명, 심상정, 안명옥, 유승희, 윤원호, 이경숙, 이계경, 이미경, 이승희, 이영순, 이은영, 이혜훈, 장복심,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조배숙, 진수희, 최순영, 한명숙, 현애자, 홍미영
18	32	46	14	32	강명숙, 광정숙, 김금래, 김상희, 김소남, 김영선, 김옥이, 김유정, 김을동, 김정, 김진애, 김혜성, 나경원, 박근혜,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선숙, 박선영, 배은희, 손숙미, 송영선, 신낙균, 이두아, 이미경, 이상남, 이애주, 이영애(한), 이영애(자유), 이은재, 이정선, 이정희, 이혜훈, 전여옥, 전재희, 전혜숙, 전현희, 정미경, 정영희, 정옥임, 조배숙, 조윤선, 진수희, 최경희, 추미애, 최영희
19	39	53	22	31	강은희, 권은희, 권은희, 김미희, 김상희, 김영주, 김을동, 김재연, 김제남, 김현미, 김현,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류지영,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근혜, 박영선, 박윤옥, 박인숙, 박혜자, 배재정, 서영교, 손인준, 신경림, 신의진, 심상정, 유은혜, 윤금순, 윤영희, 은수미, 유승희, 이미경, 이연주, 이에리사, 이자스민, 인재근, 임수경,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진선미, 정미경, 정윤숙, 추미애, 최민희, 한명숙, 한정애, 황인자
20	27	51	26	25	권미혁, 권은희, 김삼화, 김상희, 김수민, 김수례, 김승희, 김영주, 김정재, 김현아, 김현미, 나경원, 남인순, 박경미, 박주현,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인숙, 백혜련, 문미옥, 서영교, 손혜원, 송옥주, 송희경, 신보라, 신용현, 심상정, 유승희, 유은혜, 윤종필, 이정미, 이재정, 이연주, 이은재, 이혜훈, 인재근, 임이자, 장정숙, 조배숙, 전현희, 전혜숙, 진선미, 전희경, 정춘숙, 제윤경, 최도자, 추혜선, 최연혜, 추미애, 한정애

6대 : 비례대표제도 신설 / 16대 : 비례대표 여성 30%할당제 신설 / 17대 : 비례대표 여성 50%할당제 신설



제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51명 여성의원들이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보고서와

51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10개를 골라 통과된 것은 '통과'로 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의원실로 문의해주세요)



권미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 통과
2. 「장애인복지법」개정 / 통과
3. 「약사법」개정 / 통과
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5. 「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
6. 「국가재정법개정안」,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개정안」
7.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9. 「청소년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개정법률안」
10. 「심상 이차용방지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의원
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진상·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한병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방 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의원 등 10인)
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의원 등 11인)



김삼화 의원
국민의당
비례대표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7.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가슴가살근제피해구제에대한특별법안 / 통과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

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5.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의원
국민의당
비례대표

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 통과
2.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 통과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통과
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 통과
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 통과
6.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 / 통과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9.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순례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3.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4. 국제기본법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6. 국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8. 국제기본법 일부개정안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10. 관세법 일부개정안



김현아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통과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8. 재건축초과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1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구을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4.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6. 국가 미래인재 경영법안
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7.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8.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9. 신원불상변신사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통과(공포)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기초학력보장법안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8.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
국민의당
비례대표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
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 의원
자유한국당
안산시 단원구을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2. 이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 약취·유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7.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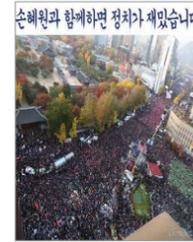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 징벌적 배상법안
7. 집단소송법안
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 의원
무소속
서울 중랑구갑

1. 기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옥시3법) / 통과
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옥시3법) / 통과
3. 소비자집단소송법안(옥시3법)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음주감경금지법)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고등교육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반값등록금법)
9. 호형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장애인복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1.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4.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5.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6.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서울 송파구갑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 학대피해 노인 지원법안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 의원
국민의당
비례대표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1. 감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
6. 자선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 청년기본법안
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의원
국민의당
비례대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1. 최고임금법안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산업안전보건법칙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유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1. 고등교육법 / 통과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통과
3. 초·중등교육법
4. 영유아보육법
5. 학교보건법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7. 문화기본법
8. 공직선거법
9. 정부조직법
10. 일제하 일본국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 소방청법안
2.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소방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제정안 / 통과
2. 환경미화원 고용안전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5. 고용보험법 개정안
6. 공직선거법 개정안
7. 근로기준법 개정안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9.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10. 민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혜훈 의원
바른정당
서울 서초구갑

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제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
3. 국제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
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8.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윤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3. 향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4.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주 의원
국민의당
경기 광명시을

1.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 통과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3.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통과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 의원
자유한국당
강남구 병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

1. 위안부할머니 생활지원법 / 통과
2. 유치원 어린이 응급조치 보호법 / 통과
3. 노인학대 방지법 / 통과
4. 해병대캠프 사고 재발 방지법 / 통과
5. 염전노예 피해자 지원법
6. 고문 피해자들을 위한 "김근태법"
7. 일본 A급 전범 훈장 회수법
8.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9.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 통과
10. 불량소고기 근절법



임이자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장정숙 의원
국민의당
비례대표

1. 공무원연금법
2. 공직선거법
3. 재해구호법
4. 국가공무원법
5. 지방공무원법
6. 상훈법
7. 동물보호법 / 통과
8.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통과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

1. 건축법 개정안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4. 행정대집행 개정안
5. 도시철도법 개정안
6.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
7. 아동복지법 개정안
8. 주택법 개정안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통과
10. 교통안전법 개정안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갑

1. 기초연금법
2. 국민연금법 / 통과
3. 의료법 / 통과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6. 재한외국인차우기본법
7.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8. 보건의료기본법
9. 건강검진기본법
10. 약사법



전희경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
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1.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2. 소방이어로법
3. 동물보호법
4. 리베티포르노 처벌법
5. 장애인 참정권 보장법
6. 청소년 기본3법
7. 학교 근처 드라이브스루 규제법
8. 학교전담경찰관의 성범죄 가중처벌 법
9. 경찰·소방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법
10. 공무원근로자 법



최도자 의원
국민의당
비례대표

1.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 죽은채권부활금지법
2. 일감몰아주기규제강화법
3. 대부업TV광고금지법
4. 연대보증금지법
5. 부당성가급환수법
6. 기술편취방지법
7. 재벌중세법 / 대안반영예정
8. 가맹사업자지체조사법
9. 채무자권리장전법
10. 공정위업무수색권법



조배숙 의원
국민의당
전북 익산시을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1.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2.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 개정안
4.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 통과
5.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 개정안 / 통과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통과
7.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 통과
8. 경제민주화 기본법안
9.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1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추혜선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8. 일본근로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대안반영)
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대안반영)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대안반영)
4. 가슴기 살균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 통과(대안반영)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8.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정치인 상징 브로치

한국여성의정은 2018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여성대표성 확대와 여성정치인 지원을 위하여 브로치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치는 무궁화 꽃잎을 형상화 한 것으로 여성정치인을 상징합니다. 유권자(핑크), 예비정치인(실버), 정치인(골드)의 의미와 여성리더십의 배려·소통·통합의 정신을 담았습니다. 한국여성의정은 여성 모두의 힘으로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기원합니다.
* 이 브로치의 판매수입금은 여성정치발전에 쓰여집니다.

도움을 주신 분

여성의정 3호 제작에 도움을 주신 태은 기획사 정태경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의정을
후원해
주세요

• 후원계좌 **농협 301-0135-2938-81**(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정)
*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2013-232호)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88조의 4 및 법인세법 제24조)



한국여성의정 참여 안내

한국여성의정은 여러분의 관심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읽으신 후 소감과 의견을 전해주시면 다음 호에 독자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1. 흥미 있었거나 유익했던 기사, 제목과 이유를 적어주세요.
2. 다음 호에 꼭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를 적어주세요.
3. 한국여성의정과 20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적어주세요.

<보내실 곳>

(사)한국여성의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42호
우편번호 07233

전화 : 02)786-5050 / 788-3341~2
팩스 : 02)784-0717
이메일 : kwpn2013@hanmail.net
홈페이지 : www.kwpn.co.kr

<정기구독 신청>

받는 분 성함 _____
받으실 곳 _____
받을 분 전화 _____
E-Mail _____
정기구독은 전화,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커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광고산업이
함께 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영 미디어랩 코바코-
방송, 통신, 광고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더 큰 내일을 이끌어하겠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의료법인 참여원의료재단
송파참노인전문병원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25번지 홈페이지 www.songpachamhospital.co.kr
대표전화 02-409-2114 입원상담 02-404-222 제 100208-중-16717호

우리는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삶을 나누어 당신에게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진료과목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장내과, 내과, 한방과

찾아 오시는 길



의료법인 참여원의료재단
성북참노인전문병원

복악산의 맑은 숨소리가 퍼지는 그곳, 창 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전망과 자연 친환경 치료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과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친환경적 치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508-183번지 홈페이지 www.seongbukchamhospital.co.kr
대표전화 02-912-2114 입원상담 02-914-2119 제 120420-중-27118호

임요양 클리닉 치료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팀
·내과 전문의 ·재활치료팀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상영양사
·한방과

임요양 클리닉 치료, 운동 프로그램

·개인 심리상담 ·암 환자 가족지원
·집단상담프로그램 ·활동치료, 필라테스
·재미있는 생활 프로그램 ·영양관리
·수치료

찾아 오시는 길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개원

2014년 4월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에서
'당신과의 아름다운 이야기'
시작됩니다

휴식과 편안함을 주는 **환자중심 의료환경**
체계적인 재활치료시스템을 도입한 **재활프로그램**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의료법인 참여원의료재단
주소 서울시 강남구 현릉로 590길 60(리엔파크아파트 5단지 앞 강남어르신행복타운)
대표번호 02-6053-2114 입원상담 02-6053-21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40407-중-56048호

진료과목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한방과, 치과

진료내용

노인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임요양프로그램

의료법인 참여원의료재단
서초참요양병원



·환자가 편안하고 안락한 환자중심 병원
·건강한 회복을 돕는 의료환경
·체계적인 재활치료시스템을 도입한 재활프로그램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

진료과목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치과

찾아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54(우면동 791번지 또는 374번지) 홈페이지 www.seochochamhospital.co.kr
대표전화 02-6081-2114 팩스 02-6081-5222 입원상담 02-6081-5454

편집후기

봄부터 소쩍새가 그리 울지 않았으면 한 송이 국화꽃은 피지 않았을까요? 신년호 발간 때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3호는 조기 대통령 선거로 봄을 훌쩍 뛰어넘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알차게 준비하리라 다짐했지만 원고 마감 후 후회는 여전합니다.

이번 3호는 20대 국회 개원 1주년과 새 정부 출범, 그리고 여성의정 3기 출범에 맞추어 다양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한국여성의정 3기 공동대표와 취임 1주년을 맞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상견례 겸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바쁜 의정 일정에서도 여성 정치인에 대한 기대와 애정, 그리고 여성의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신 정세균 의장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획 특집 기사로 역대 정부 여성장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하고 여성 장관으로서 소중한 경험과 문재인 정부의 동수 내각에 거는 기대, 그리고 후배 여성 장관들에 대한 알찬 조언 등 여, 야 정당을 초월하여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분들이지만 동수 민주주의 시대 동수내각에 대한 마음은 하나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정에게 선후배 여성 정치인의 가교 역할을 당부하신 말씀은 사업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3호 부록에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1년 동안 의정활동 성과가 오롯이 담긴 대표발의 법안을 실었습니다. 여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쁜 활동 속에서도 원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의원과 함께 성평등 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백재현, 김명연 두 의원님께도 각별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호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읽을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